



기독일보



2024년 5월 2일 목요일

www.christiandaily.co.kr

구독신청 02-6085-8166 제 2535호

친동성애 노골화 하는 UMC? '전통적 규정' 일부 삭제



연합감리교회(UMC) 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UM News

2019년의 동성애자 성직 안수 금지 규정 등 삭제 청원안 통과 '동성애 행위, 기독교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규정도 바뀔까?

연합감리교회(UMC)가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 통과된 성소수자 관련 '전통적 규정'의 일부를 삭제했다. 교단이 친동성애적이라고 판단한 약 7,600개 교회들이 탈퇴한 뒤 UMC의 이런 경향이 더욱 노골화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4월 30일(현지 시간) 연합감리교뉴스(UM News)에 따르면 UMC는 이날 총회 본회의에서 지난 2019년 동성애자 성직 안수를 금지한 규정 등의 삭제를 청원한 안을, 토론 없이 대의원 667명의 압도적

찬성과 54명의 반대로 통과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통과된 내용은 △연회와 교단 기관이 UMC 기금을 '동성애자 그룹'에 제공하거나 '동성애자 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금지 조항을 삭제한다 △성직안수위원회는 후보자가 동성애자인지 여부로 후보자를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감독은 동성애자 후보자를 부적격자라고 명시한 규정을 삭제한다 △동성 결혼식이나 결혼식을 주례로 위촉 판결을 받은 성직자에 대한

무급 정직 1년 이상의 의무적 처벌 조항을 삭제한다 △감독은 해당 연회에서 임지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우수한 기준을 갖춘 동성애자에게 연회의 경계를 넘어 파송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교단의 '자칭' 동성애 실천 성직자 및 동성 결혼식 금지와 관련한 사법 절차를 유예한다. 이 유예 조치는 총회가 이를 변경할 때까지 지속된다 등이다.

이번 총회에서 삭제하기로 한 규정 중 일부는 지난 2019년 특별총회에서 438대 384의 표차로 통과된 것들이다. 성(性)에 대한 전통적 입장을 지지한 찬성표가 조금 더 많았다. 그랬던 것이 5년이 지난 뒤 667대 54로 완전히 판이 뒤바뀐 것이다.

보수 성향인 7,600개 교회들이 교단을 떠났기 때문에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다.

연합감리교뉴스는 "UMC 미국 내 교회의 4분의 1이 교단을 떠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총회에서 교단의 정책적인 장정의 내용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총회 대의원들은 이번 주 후반에, 교단의 오랜 금지 조항과 '동성애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라는 52년 된 규정 및 그와 연관된 다른 청원안들을 투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보도에 따르면 성소수자에 대한 장정의 표현을 바꾸기 원하던 이들은 장정의 동성애 관련 부분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창립 30년' 지구촌교회 부흥의 이유 중 하나는 '이것'

5월 20~22일 중보기도 컨퍼런스 개최 최성은 목사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한 중보기도" 훈련된 중보기도팀, 다양한 자리에서 깊이 기도 2019년부터 '3천 중보 용사' 기도 사역 선포

지구촌교회(담임 최성은 목사) 창립 30주년 기념 '2024 중보기도 컨퍼런스'가 '기도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지구촌교회 분당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지구촌교회는 매년 '지역교회 중심 세상 중보'의 길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에 중보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었다. 올해 지구촌교회는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성경적 중보기도의 사명과 중요성에 대해 나눌 예정이다.

특히 교회 측은 "연속적이며 체계적인

중보기도 사역 네트워크를 만들어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불길을 일으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원 원로목사는 행사에 대해 "지구촌교회가 지금까지 경험한 중보기도의 축복을 나누며 한국교회에 다시 한 번 이 땅에서 목마르게 갈망하고 있는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은 담임목사는 "지난 팬데믹 상황이 교회의 많은 사역을 어렵게 했지만, 신앙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걸고 멈출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기도임을 확인시켰다"며 "지구촌교회가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적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목사는 "지구촌교회는 이미 훈련된 중보기도 사역팀이 다양한 사역의 자리에서 '기도 특공대'와 같이 깊이 있게 기도해 왔다"고 말하고, "그러나 더 많은 성도가 기도에 힘쓰도록 2019년부터 '3천 중보 용사' 기도 사역을 선포했고 이를 통해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를



지구촌교회 최성은 담임목사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다. ©지구촌교회

통해 받은 은혜와 도전으로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 지역 사회,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주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컨퍼런스 특별 강사로 나서는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담임)는 "우리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의 지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경험하게 되는 컨퍼런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는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놀라운 안목을 열게 될 것이고,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축복한다"고 말했다.

이번 중보기도 컨퍼런스는 지구촌교회 분당캠퍼스에서 현장 참여로 진행하며,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담임), 이규현 목사(수영로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선한목자교회 원로)가 강사로 나선다.

다양한 강의와 기도 실습과 함께 실제 중보기도 사역 현장인 중보기도실을 탐방하며, '중보기도 사역 Q&A'를 통해 중보기도 사역에 대한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등록은 중보기도 컨퍼런스 홈페이지(www.jiguchon.or.kr/prayer)를 통해 가능하며, 모든 등록자에게는 중보기도 컨퍼런스 교재와 함께 중보기도 사역의 실제적인 부분을 소개하는 책자인 '중보기도 사역론의 실제',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행정자료 파일을 제공한다.

교회 측은 "또한 중보기도 사역이 교회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사역 컨설팅과 코칭으로 도움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CCA, 아시아주일 앞두고 미얀마 위한 연대 요청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가 오는 12일을 앞두고 미얀마를 위해 회원교회의 연대를 요청했다.

올해 아시아주일의 주제는 '미얀마: 희망의 하나님, 우리를 기쁨과 평화로 채우소서(Myanmar: God of Hope, Fill Us with Joy and Peace)'로 결정됐다. CCA는 회원 교회, 협의회, 에큐메니칼 동역자들에게 관련 예배 순서지를 배포해 함께 아시아 주일을 지게 달라고 당부했다.

미얀마의 상황에 대해 CCA는 "2021년 군사쿠데타 이후 미얀마 국민들은 군사정권에 의한 대량 학살, 고문,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소수민족이 반인도적 범죄의 큰 피해를 받았다고 전했다.

CCA 총무 매튜 조지 추나카라 박사는 "우리는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억압이 종식되고, 미얀마의 평화와 정의의 실현을 위해 기도하며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미얀마 시민들이 2020년 11월 총선 결과에 불복하며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에 대한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다. ©DW 다큐멘터리 영상 캡처

"미얀마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줄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CCA는 매년 아시아주일을 지난 9년간 지켜왔으며, 이번 주제를 통해 아시아 교회들이 미얀마에 대한 연대와 도움을 나누는 책임을 다짐했다. 노형구 기자

아름다운피켓, 어린이날 태아생명축제

아름다운피켓(대표 서운화)과 주사랑공동체(메이비박스)가 어린이 날 맞아 오는 4일 신촌 현대백화점 유폴렉스 앞 스타광장에서 어린이날 태아생명축제 '태아도 어린이예요: 장애가 있어도 소중한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신촌감리교회(담임 임재용

목사), 부천 성수교회(담임 김승리 목사), 운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 및 여러 개인 후원자들의 후원으로 준비됐다.

한편 태아생명존중 단체 아름다운피켓은 2011년부터 태아생명존중 및 원치 않는 임신 예방과 관련된 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노형구 기자

서울씨티교회, 어린이 날 '매직콘서트' 성황 >> 7면

장신대 김성중 교수 "삶의 목적대로" >> 22면

30 ANNIVERSARY YEARS

지구촌교회 창립 30주년 기념

2024 중보기도 컨퍼런스

5/20월 - 22수

이동원 목사
(지구촌교회 원로)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담임)

이규현 목사
(수영로교회 담임)

유기성 목사
(선한목자교회 원로)

기도로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라

일정 5/20(월)-22(수)
장소 지구촌교회 분당캠퍼스 분당
등록 중보기도 컨퍼런스 홈페이지 www.jiguchon.or.kr/prayer
문의 중보기도 컨퍼런스 진행본부 031-710-9414 prayer_c@jiguchon.org

종보기도 컨퍼런스 등록바로그	개인		선교사/신학생
	1차	2차	3차
5/20(월)-22(수)	4/1(월)-22(월)	4/23(화)-5/6(월)	5/21(화)
	8만원	9만원	3만원
	10만원		

시간	5/20(월)	5/21(화)	5/22(수)
오전	강의 1 중보기도 사역 이동원 목사	강의 6 교회적 중보기도의 중요성 최성은 목사	강의 11 기도 경험과 여러교 직전 유대연 목사
	강의 2 기도의 기쁨 유기성 목사	강의 7 기도하는 교회는 다르다 이규현 목사	강의 12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중보기도(오 17강) 이동원 목사
오후	강의 3 중보기도의 특성과 의무 서경철 목사	강의 8 응답받는 기도의 태도 최철준 목사	
	강의 4 중보기도의 슬리의 모본 박길호 목사	강의 9 영적 전쟁의 슬리를 위한 기도 조대호 목사	
저녁	강의 5 병든 자를 위한 기도-민족치유 이동원 목사	강의 10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세상변화 최성은 목사	

5/20(월) 오전 9시 부터 등록 확인 및 교재 배부가 진행되며 오전 9시 50분 부터 컨퍼런스가 시작됩니다.

중보기도 컨퍼런스 에 오시면 교회 중보기도 사역에 적용 가능한 '성경적 중보기도'의 이론과 실재를 배웁니다. 지구촌교회의 실제 중보기도 사역을 보실 수 있습니다(일부). 중보기도 행정자료 제공 및 후속적인 중보기도 사역 컨설팅과 코칭을 해드립니다.

“목사와 장로 대립하는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 없어”

황대우 박사, ‘목사와 장로의 바람직한 관계’ 주제로 메시지 전해



계재했다.

황 박사는 “교회 불화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바로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이다. 이 갈등이 심화될 경우 그 과정과 결과의 위력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할 정도로 대단하다”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화와 갈등의 반목은 단순히 1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2세대와 3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지고 복잡해진다”고 했다.

이러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과 불화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인간 역사에서 이런 종류의 불화와 갈등은 대부분 ‘누가 머릿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며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의 머릿이라고 가르치고 배우지만, 대부분의 지상교회는 이것만으로 인간 역사의 보편적 문제, 즉 ‘우두머리 현상’을 극복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마도 이것은 그 교회들의 교리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실제적인 머리는 힘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교회 분쟁이 발

생하면 양심 뿐만 아니라 신앙조차도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사이에도 이견과 갈등은 일어날 수 있다. 목사도 장로도 옛 사람의 성품을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한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교회의 목사와 장로라 할지라도 이견과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며 “문제는 이견과 갈등이 불화와 분쟁으로 발전하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인화물질이 많은 곳에서는 초기에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것처럼 작은 갈등의 불씨도 믿음으로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또 “이견과 갈등이 쉽게 불화와 분쟁으로 번지게 하는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입의 ‘말’이다. 교회는 잠으로 말이 많은 곳이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라고 가르치는 성경의 경고와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실천되지 않는 가르침 가운데 하나”라며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는 일보다 말을 줄이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닐까 싶다.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군대는 말보다 겸손한 기도가 훨씬 위력 있다고 가르치지만 실제로 교회의 불화와 분쟁을 위해서는 기도가 무력한데 반해 수군대는 말은 핵폭탄의 위력을 발휘하

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사이에 불화와 분쟁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교회가 고스란히 입게 된다”며 “이견과 갈등이 불화와 분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불화와 분쟁을 겪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고집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를 손상하거나 왜곡시키지 않는 상황과 내용이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특히 방법의 문제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타협하고 양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양보 없이 끝까지 고집하고 싸운다면 그것은 불신앙적인 자세일 수밖에 없다고 감히 단정한다”고 했다.

황 박사는 “세상에서는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냐?’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 하지만 교회에서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되어서도 안 된다”며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평등하다. 다만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하고 이 질서를 위해 직분을 세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 직분 가운데 목사와 장로, 특히 장로교에서 목사와 장로 위에 있는 직분은 없다. 그래서 교회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곳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회 직분에는 역할 분담만 있을 뿐이지 선후

나 상하가 없다고 하는 주장은 교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로교에서 목사와 장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우야 하는 중차대한 책무를 맡고 있다. 그런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균열은 당장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따라서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조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다른 누구보다 기도에 힘써야 할 성도들이다. 사실 장로의 직분은 가르치면서 동시에 다스리는 직책을 의미한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로 구분한 것은 교회 안에서 장로의 두 직무가 너무 중차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니라(딤후 2:15)”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 직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스리는 직분이기 때문”이라며 “세상에서는 최고의 권력자가 다스리고 지배하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많이 섬기는 일에 수고하는 자가 다스리고 지배한다. 이 섬김의 일을 감당하

는 것이 장로 직분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해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경은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를 구분하면서 가르치는 장로에게 가장 큰 존경심을 가지도록 교회에 권면한다. 왜일까? 이것은 세상의 통치 방식과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교회의 통치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세상에서는 ‘통치’가 가르침에 앞선다. 그래서 누가 권력을 잡았느냐에 따라 가르침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가르침’이 ‘다스림’을 앞서고 ‘다스림’은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나라와 이 나라의 원리는 영원할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하고 불변하는 가르침”이라고 했다.

이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그분의 가르침 없이는 알릴 수도 나타날 수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며 “선행하는 복음 선포 없는 하나님 나라는 그릇과 같다. 올바른 가르침으로부터 올바른 통치와 다스림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른 가르침 없이는 올바른 다스림이 있을 수 없다. 반대로 올바른 다스림 없는 올바른 가르침이란 울리는 꿩과 리얼 뽕”이라고 했다.

황 박사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는 자신들을 직분자로 세우신 그리스도, 즉 머리를 중심으로 그분의 몸인 교회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 누구보다 서로 협력해야 할 사람들”이라며 “목사와 장로의 바람직한 관계는 이미 다 잘 알고 있다.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다. 교회 안에서 장로가 다스리고 장로끼리 힘을 모아 목사와 싸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적 행위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목사 역시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앞세우거나 후견으로 삼아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들을 제거하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는 거룩 오히려 허무는 행위일 뿐”이라며 “목사와 장로가 대립하는 교회치고 건강한 교회는 없다. 목사와 장로는 교회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신을 최우선으로 희생할 각오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최고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자”고 했다. 장요한 기자

한가협, 트랜스젠더 등의 에이즈 위험 경고 전해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 UNAIDS DATA 2023 발표

유엔 산하 에이즈 관리국인 UNAIDS에서 성매매종사자, MSM(men who have sex with men)과 트랜스젠더를 에이즈 감염 위험군으로 분류하여 HIV/AIDS의 유병률이 별도로 조사된 나라의 자료를 UNAIDS DATA 2023에 발표했다.

(사)한국가족보건협회는 UNAIDS DATA 2023에서 발췌, 2022년도 국가별 HIV/AIDS 유병률 도표를 작성해 (사)한국가족보건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가협 측은 “자료를 국민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하면, HIV/AIDS 감염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HIV/AIDS 감염인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했다.

국가별 HIV/AIDS 유병률 통계 자료를 보면, 상시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성매매 종사자보다 MSM(men who have sex with men)과 트랜스젠더의 HIV/AIDS 유병률이 심각하게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아시아와 남아메리카 지역의 HIV/AIDS 유병률을 보면, 성병 고위험군인 성매매 종사자보다 MSM이 최소 1.5배에서

최대 45배까지 높으며, 트랜스젠더는 최소 3.1배에서 최대 23.8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HIV/AIDS 유병률은 성매매 종사자보다 MSM이 최소 1.2배에서 최대 16.4배까지 높으며, 트랜스젠더는 최소 1.7배에서 최

지역	국가	HIV/AIDS 감염률(%)			성매매종사자 대비	
		성매매 종사자	MSM	트랜스젠더	MSM	트랜스젠더
아시아	방글라데시	0.1	1.7	0.9	17배	9배
	중국	0.1	4.5		45배	
	인도네시아	2.1	17.9	11.9	8.5배	5.7배
	말레이시아	1.9	12.9	5.9	6.8배	3.1배
	태국	1.1	11.9	11	10.8배	10배
남아메리카	베트남	2.5	12.5		5배	
	도미니카공화국	4.6	7	27.7	1.5배	6.0배
	에콰도르	1	10.2	18.2	10.2배	18.2배
	엘살바도르	0.1	2.7	2	27배	20배
	멕시코	0.8	11.9	4.9	14.9배	6.1배
동유럽	파라과이	1.5	21.9	31.7	14.6배	21.1배
	페루	1.3	10	30.9	7.7배	23.8배
	베네수엘라	1.7	26	35.8	15.3배	21.1배
	폴란드	2.7	11.4		4.2배	
	세르비아	1.5	6		4배	
북아프리카	모로코	1.7	4.9		2.9배	
	튀니지	0.5	8.2		16.4배	
	배냉	7.2	8.3	21.9	1.2배	3.0배
중아프리카	콩고	8.1	41.2		5.1배	
	코트디부아르	4.8	7.7	24.7	1.6배	5.1배
	나이지리아	16.7	25	28.8	1.5배	1.7배
	세네갈	4.8	27.6		5.7배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62.3	29.7	58	0.5배	0.9배
	짐바브웨	45.1	21.1	27.5	0.46배	0.6배

국가별 HIV/AIDS 유병률 도표 ©한가협

대 5.1배까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성매매 종사자의 62.3%, MSM의 29.7%, 트랜스젠더의 58%가 HIV/AIDS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

한가협 관계자는 “HIV/AIDS 감염자는 80년 후반에 최초 발생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동성애 옹호 등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2008년부터 교

육단체가 적극적으로 알리게 되어 201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동성애, 마약중독 확산 등으로 2~30대 청년들은 5~600명 이상의 감염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UNAIDS DATA 2023에서 발표된 MSM과 트랜스젠더의 유병률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나래 기자

“아동 희생시키는 이팔 전쟁 멈춰라”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한 전 세계 250여 개 단체, 휴전 촉구 성명 발표

전 세계 250개 이상의 인도주의 및 인권 단체는 오는 5월 2일 글로벌 행동의 날로 정하고 함께 아팔 전쟁 휴전 촉구 목소리를 낸다.

7개월째 접어든 전쟁으로 팔레스타인인 3만 3,000명 이상 사망했으며, 이 중 최소 1만 4,500명이 아동으로 추정된다. 가자지구 인구의 70% 이상인 약 170만 명이 강제로 이주했으며, 이스라엘의 이주 명령에 따라 대다수가 남쪽 라파 지역으로 이주했다.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약 22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으며, 절반인 약 110만 명은 재정착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 이는 인도주의 단체가 기록한 것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간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 석방을 요구하는 결의가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에서 처음 채택됐다. 4월 5일 유엔 인권이사회도 세계 각국에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에 세이브더칠드런을 비롯해 전 세계 250여개의 인도주의 및 인권 단체는 지난 4월 11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를 대상으로 무기, 부품, 탄약의 이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UN 무기거래조약(Arms Trade Treaty, ATT)의 가입국으로, 전쟁 범죄 연루 위험이 있는 곳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을 조약을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무기협회 등에게 따르면, 한국은 202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최소 114만 달러(한화 약 15억 7천만 원)의 총기, 탄약, 부품 등의 무기를 수출하

고 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도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서울 도시건축전시관 앞에서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전쟁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퍼포먼스를 벌였다.

전 유엔(UN)대사인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은 심각하다. 지난 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아이들이 희생되고 죽음의 문턱에 내몰렸다.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중 폭격과 같은 무력 사용은 광범위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작고 연약한 신체 를 가진 아동에게 더욱 치명적이다.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 건 무기가 아닌 평화와 식량,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이다. 아이들이 희생시키는 전쟁을 즉각 멈추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원-에너지 LX 인터내셔널 글로벌 스마트 플랜트 LX 판토스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 하우스 신소재 개발 LX MMA 차세대 반도체 LX 세미콘 우리 솔루션 LX 글라스



LX
LINK FOR NEXT

“교회 바로 서면 나라 안 흔들려… 회개·기도운동 일어나길”

권태진 목사, 최근 총선 결과와 한국교회 등에 대한 생각 밝혀 민주당, 힘 과시 말고 국가 미래 위한 입법 활동을 대통령, 여론 휩쓸리지 말고 국민 행복 위해 당대히 교회-국가는 동반자, 아픔 치유하며 함께 나아가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끝나고 이제 개원을 앞두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지도자들인 만큼 한국교회 역시 총선에 큰 관심을 가졌다. 이에 교계 원로로서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대표회장 등 교계 기관장을 두루 역임한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담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사신)에게서 새 국회와 한국교회에 바라는 점 등을 들어봤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담.

-제22대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제21대 총선처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한 만큼 결과에 대해선 모두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제는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힘을 과사하지 말고 여당과 소통하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바른 기준을 세워 입법을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기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안보·교육·경제·사회 전반에 화합을 추구하고 국민 행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서 함께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보다 더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제도를 정비해 달라라는 겁니다. 일각에선 사전선거 제도 등에 대해 불신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스스로도 행복합니다. 백세시대에 4년은 순간입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가족과 후손, 자신의 미래가 행복합니다.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해 주는 것이 입법부의 권위를 더 세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평안을 위해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격정거리가 되게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정치가 범죄 혐의를 덮으면 부패한 정권이 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제안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좀 더 신중했으면 합니다. 나라는 커다란 가정입니다.

어머니는 자녀에 맞게 선택하여 음식을 줍니다. 또 국민 다수의 선택을 받아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 지도자로서 여론에 휩쓸리기보다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권력을 선용해 여야의 화합으로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공의가 감동처럼 흐르는 세계일 등국가를 만들기 위해 죽을 각오로 임하여 세계 최고의 지도자로 역사에 선한 이름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는 어떤 주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사실 선거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교회가 어떠한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서로 연합해 굳건히 서 있다면, 세상의 정치 세력이 어떻게 바뀌든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사본오열돼 있습니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세속에 휩쓸려 사명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의의 위

해 핍박받기를 선택하기보다 세상과 쉽게 타협하는 모습들이 많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한국교회에 그런 회개운동, 기도운동이 불붙듯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연합기관들 사이의 통합 논의도 답보 상태입니다.

“저 자신을 비롯해 연합기관에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 혹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더 앞세우지 않았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 스스로 무얼 이뤄보려고 할 때는 늘 한계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보수 진보 연합기관이 각 하나씩만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국가와 한국교회를 위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경제적 번영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세계의 모범이 되는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가 서로 동반자로서 이런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어려운 이들을 보듬고 국가의 안정을 위해 기도하며, 국가는 그 권력을 이용해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교분리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힘쓰는 출산 문제 극복의 답은 기독교에 있습니다. 저출산 해결은 창조 원리의 회복과 인간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출산 장려를 위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게 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차별금지법과 약법들을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 또한 더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 기자

“미국 내 기독교 적대감 고조”... 박해감시단체 경고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천컨서션(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의 제프 킹 회장이 미국과 서구에서 증가하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에 대해 경고했다.



인터내셔널크리스천컨서션(ICC)의 제프 킹 회장. ©Persecution.org

킹은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범비 속의 개구리이며, 거품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어왔는지에 대해 너무 익숙해서 이 거품이 어디서 온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요리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995년 전 세계적으로 박해받는 교회를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ICC는 최근 텍사스의 스테이시 바버(Staci Barber)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바버는 지난 3월 휴스턴 인근의 캐티 독립교육지구(Katy Independent School District)를 고소한 여교사이다. 그녀는 작년 9월, 전미 학생 기도 운동 행사인 ‘씨유앳더폴(See You At the Pole, SYATP)’에서 학교 강대 주변에서 두 명의 교사와 함께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장에게 문책을 받았다.

킹은 바버의 사례가 “학교 이사회와 심지어 교장까지도 한밤에 개인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한 심각한 무지를 나타낸다”며 “그녀의 상황은 미국 내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적대적 태도를 보여주는 징후”라고 말했다.

킹 목사는 ICC가 해외에서 발견한 기독교 박해 추세가 미국과 서방의 자유민주

주의 국가들에서 점점 더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중에서도 그는 부패하고 번거로운 사법 절차와 혐오 표현법을 주요 요인으로 지목했다.

킹은 독재자와 폭군들이 입으로는 종교적 자유를 약속하지만, 종교적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강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그런 일이 익숙하다면, 그 이유가 있다”며 “큰 그림과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점은 서구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기독교를 혐오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를 제안하며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킹 목사는 박해 국가에서 정치적으로 무기화된 사법 제도가 신앙 표현을 억제하고, 기독교인들이 자기 검열을 하도록 몰아간다고 했다. 그는 인도의 사례를 인용해 한밤에서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더라도 기독교인들이 점점 더 박해를 받으며, 교회가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법원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더라도, 번거로운 사법 절차가 장애물이

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들은 고개를 들지 말라고 배우고, 그 과정 자체가 처벌받기 때문에 침묵한다”며 심지어 미국의 기독교 단체에서도 LGBTQ 문제와 성별 대명사 사용으로 인해, 인사실로 소환되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가장 심각한 혐오 표현법이 캐나다와 유럽에 있지만, 미국에서도 성적 표현을 규제하려는 평등법(Equality Act)이 발의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것은 전략적이고, 바나나 공화국적(banana republic, 정치적으로 부패한 독재 국가적)이며, 이는 기독교의 정치적 적대자”라며 “그들은 권력을 얻었고, 민주주의 법과 권력을 이용해 그들의 정치적 적에 맞서고 있다”고 했다.

킹은 또한 미국 문화가 지난 30년 동안 현저하게 변화했으며, 시민들이 정치 지도자들의 전체주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결정에 “노스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서서히 진행되었으며, 1980년대 도덕적 다수파의 정치적 부상에 대한 반발로 확대된 것 같다고 말했다.

킹 목사는 그들의 영향력을 “지난 30년 동안 대중에게 쏟아낸 독”에 비유하며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수십 년 동안 부도덕을 조장하고, 신앙인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미국 대법원의 일부 판결이 기독교에 호의적이었지만, 다수의 학교 이사회 및 고용주들의 행동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캔슬컬처(cancel

culture)의 급부상으로 공개적인 토론이 침묵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했다.

킹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자신의 영향권에서 부활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은 실제로 부활로 귀결되며, 우리 개인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돌아가서 미국의 정치적 상태가 아닌, 종교적인 상태에 대해 부르짖어

야 한다”며 “우리에게는 부활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 모든 것은 개인적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서 ‘저를 다시 부르시면 무엇이든지 완전히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은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권면했다.

유진 김 기자

온누리교회·신동아건설 진출입로 분쟁 4년 만에 해결

온누리교회(담임 이재훈 목사)는 기존 진출입로에 신동아건설 측이 설치한 울타리로 4년간 통행 불편을 겪어왔지만,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위원장 유철환)는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열고, 교회 부지와 인근 부지 일부를 합쳐 폭 6m의 보차혼용통로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온누리교회는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돼 있던 신동아건설(주)의 토지 일부를 30년 이상 주된 진출입로로 임차해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가 2020년 7월 진출입 도로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자 신동아건설(주)과 교회 간 진출입로를 놓고 인대로 분쟁이 발생했고, 합의가 불발돼 결국 신동아건설 측이 교회를 사용해보던 진출입로에 울타리를 설치해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이에 교회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이 온누리교회 인근 현장에서 민원 내용을 전하고 있다. 맨 오른쪽은 온누리교회 담임 이재훈 목사. ©용산구

제기하고 긴급 상황 시 구급차·소방차 진출입로 확보를 요구했으며, 국민권익위는 교회, 용산구, 신동아건설(주)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 결과로 신동아건설(주) 토지 4m와 교회 토지 2m를 이용해 총 폭 6m의 통로를 지정하고, 교회의 진출입로를 마련하고 서빙

고역 접근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보차혼용통로 개설로 교회 신도들의 불편이 완화되고, 신동아건설의 사업 진행이 용이해졌다”며 “당사자들이 더욱 협력하여 상생하는 결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당신을 변화시키는 움직임
The Kia EV

KIA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001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화해·나아갈 길 찾아내”

르완대 대학살이 신자에게 주는 3가지 교훈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르완대 대량 학살이 기독교인에게 주는 3가지 교훈에 대해 최근 소개했다. 이 글을 쓴 에드거 산도발(Edgar Sandoval Sr.)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World Vision) 미국 지부의 회장이다.



산도발 회장은 칼럼에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르완대를 1994년 투치족에 대한 대량 학살에 관한 뉴스나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 알고 있다. 그 해 4월부터 7월까지 약 100일 동안 이웃들이 서로 총들하여 최대 100만 명이 사망했다”며 “르완다 사회는 붕괴되었다. 거의 모든 시민이 대량학살의 피해자, 가해자 또는 유혈 사태의 목격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역사를 알고서, 최근 방문했을 때 목격한 변화는 내게 감동과 경외심을 주었다”며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화해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냈다. 그리고 국가는 교육 및 기본 서비스 이용 등의 분야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루었다”고 했다.

그는 “르완다인들이 지난 30년 동안 성취한 것은 단순히 기분 좋은 이야기 그 이상”이라며 “이는 미국 기독교인들에게 분열, 통합 및 신앙의 역할에 대한 경고와 영감을 주는 최고의 수업”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제1과: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

여행 중에 나는 대량학살 추모관과 박물관을 방문했고, 우리의 단어 선택이 얼마나 쉽게 불화와 분열을 심는지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받았다. 오늘날 르완다인들은 더 이상 서로를 후투족이나 투치족이라고 부르지 않고, 모두가 그저 ‘르완다인(Rwandan)’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대량학살이 일어나기 몇 년 전부터 후투족은 투치족을 ‘비퀴벌레들(cockroaches)’이라고 불렀다. 이는 투치족을 이웃이나 친구가 아닌 다른 단어로 묘사한 첫 시작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이지만 그 결과는 끔찍하다.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온라인에서 추악하고 상처를 주는 말들을 흔하게 보게 된다. 사람들을 ‘우리’ 또는 ‘그들’ 중 하나로



2019년 2월 19일에 르완대 대량학살 가해자 보니페이스가 루강고 지역의 가톨릭 교구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해 간증하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

구분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내게 있어 르완다는 말이란 치유나 상처를 주는 강력한 도구임을 경고하고 일깨운다. 우리는 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제2과: 신앙은 치유와 연합에 중요한 요소이다

대량 학살 동안, 대개 안전한 피난처로 여겨지던 일부 교회들은 도살장으로 변했다.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으로 피신했지만, 대신 그곳에 갇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해되었다. 추모관에 있는 이 장면의 사진들을 보고,

생존자들의 영상을 듣고 있기 힘들었다.

하지만 르완다에서 신앙이 화해를 가져오는 데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보며 용기를 얻었다. 오늘날 모든 폭력과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르완다인들은 이웃을 용서하고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 르완다는 메달랜드 주의 크기와 비슷하지만, 인구는 두 배 이상 많은 나라이며, 신앙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30년 전, 대량학살의 공포 속에서 엘리사라는 여성은 아기와 오른손을 잃었다. 이때 후투족 무리는 마체테와 몽둥이를

들고 그녀에게 내려왔다. 그 폭행 속에서 그녀는 에마누엘이라는 한 남자를 알아 보았다. 그들은 자리면서 같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이다. 그날 그는 마체테를 휘두르고 있었다.

월드비전과 교회 파트너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작된 화해 노력 덕분에, 에마누엘은 과거를 직시하고 엘리사에게 용서를 구했다. 결국 그녀는 그를 용서할 수 있었다. 오늘날 그들은 서로를 친구로 여긴다. 그들은 서로의 집을 방문하고, 자녀들도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사람들이 이러한 잔학 행위를 용서한 방식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임을 증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가족을 죽인 사람과 함께 살거나, 교회에 다니거나, 함께 일할 수 없다. 나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는다. 또한 그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제3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

우리 세계의 일부 장소에는 ‘희망 소멸(lost causes)’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 유혹이 든다. 매일 뉴스 보도에는 위기, 분쟁 및 극심한 빈곤의 사례가 가득하

다. 도움을 준다는 것이 해변에 모래 약간을 더 부어서 쓰나미를 막으려는 것처럼 절망적이고,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르완다에서 목격한 발전은 그러한 사고방식과 반대된다. 작년에는 르완다 정부 및 국민과 파트너십을 통해, 5년 만에 100만 명 이상에게 깨끗한 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월드비전의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2018년에 이 목표를 세웠을 당시, 우리 모두는 르완다 전역에서 작업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만 진전된 것이 아니다. 르완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정의한 대로 2035년까지 중소득 국가, 2050년까지 고소득 국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시민들이 전기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는 30년 전, 르완다의 상황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미래이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대량학살의 참상을 기억하며,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돌아보고, 협력과 신앙을 통해 가능한 것에 대한 영감과 경외심을 가지기를 바란다.

유진 김 기자

장신대-소망교회, 재난 위기 극복 매뉴얼 대응책서 제작 위해 업무협약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운용, 이하 장신대)가 최근 코로나19를 통한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위기의 극복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책서 제작을 위해 소망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식을 위해 △소망교회에서는 국내선교부 유지미 목사, 김기영 장로, 지준 장로, 김선홍 집사가 참석했고 △장신대에서는 김운용 총장, 대외협력처장 신형섭 교수, 기획정보처장 박경수 교수, 학술연구처장 김은혜 교수가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장신대는 코로나19를 통하여 큰 위기와 혼란을 경험한 한국교회가 향후 새로운 감염병이 닥치게 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재난 위기의 극복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책서를 제작하고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소망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교회가 코로나19를 대응하며



장신대-소망교회 업무협약 기념 사진. ©장신대

수행한 활동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연구 결과를 책으로 출판하여 교회와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되었지만, 향후 언제든 새로운 감염병이 닥치게 될 때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한국교회 재난 위기 극복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는 대

응책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소망교회는 코로나19의 시절을 해석하고 기록하고 기억하는 매듭이자 코로나19의 시절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뛰게 하는 구름과 역할을 위해 ‘소망교회 코로나19 대응책서’ 도서를 제작하기도 했다.

장요한 기자

성공회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 성료

교내 구성원과 국내·외 인사 120여 명을 포함 약 250여 명 참석



성공회대 개교 110주년 기념식 진행 사진. 이날 김경문 총장은 성공회대 비전 2034를 발표했다. ©성공회대

성공회대학교(총장 김경문)가 ‘개교 110주년 기념식’을 최근 성공회대 피츠버그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내 구성원과 국내외 인사 120여 명을 포함한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1부 기념식에선 김경문 총장이 향후 10년의 미래 계획을 담은 4차 중장기 발전 계획인 ‘성공회대학교 비전 2034’를 발표했다.

김 총장은 “성공회대학교는 ‘성공회대학교’라 불릴 정도로 성공회대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 왔다”며 “여러 어려움과 도전 가운데 우리 사회의 정신을 지키는 창조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온 성공회대학교의 전통과 자부심을 이어 나가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날 비전에서는 미래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지구적 관점과 문제해결 능력으로

생태전환과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융합형 인재 양성을 새로운 교육목적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학생들은 다양한 학문 분야의 지식을 결합해 전 세계적인 문제와 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논리적이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포용적 태도와 맞춤형 리더십을 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신대 강성영 총장을 비롯해 이인영 국회의원, 고민정 국회의원, 문헌일

타 총장이 축하했으며, 성공회대 합창단의 축하공연도 진행됐다.

특히 이날 (주)네트워킹홀딩스 키시다 토오루 대표이사에게 명예경영학박사 학위 수여식이 진행됐다.

키시다 대표는 글로벌 기관들에 무상으로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제공하며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 자회사 설립해 한일 양국의 교육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기념식 이후 참석자들은 구두인 관 앞으로 이동하여 2부 행사인 개교 110주년 기념식수가 진행됐다. 장요한 기자

Good Neighbors effect

소외된 이웃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당신의 손길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난 33년간 전 세계 좋은 이웃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Good Neighbors Effect 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세상에 좋은 변화 만들기

“라스베가스 교회들에 지금 필요한 것은 제자훈련”

[라스베가스 한인교회를 가다4] 필그림교회 남덕중 목사

미주 기독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아 미주 각 지역에서 성실히 목회하고 있는 교회들을 돌아보고 한인 목회자들의 고군분투기를 기록한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한인밀집 지역이 아닌 도시에서 열정을 쏟고 있는 목회자들을 우선적으로 만나 보도한다. 네번째 순서로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남덕중 목사와의 인터뷰를 실는다. <편집자 주>

라스베가스의 한인들은 대부분 타주에서의 생활을 경험했던 이들이다. 미국 이민에 바로 유입되는 경로가 아니다 보니 타주에서 이미 선전수준을 다 겪은 한인들도 많다. 힘든 이민생활 중에 마음이 거칠어져 있기도 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미국에 정착하던 기존의 한인들과는 다른 생활양식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 이런 가운데 라스베가스에서 제자훈련을 통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교회가 있다.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남덕중 목사는 2013년부터 필그림교회 담임을 맡고 있다. 교회는 지난해 10주년을 의미있게 보내고, 올해 11년차를 맞아 합찬 사역을 펼치고 있다. 필그림교회는 한국식 제자훈련을 라스베가스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교회이기도 하다. 한국과 전혀 다른 목회 토양에서 제자훈련으로 성도들을 키워내는 교회가 되기까지 남 목사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한국에서는 서울과 인천에서 각각 교회를 개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의 첫 개척은 저에게 여러모로 큰 도전이었습니다. 한국과 같이 담임을 크게 존중해주는 문화도 아니었고 오히려 목회자는 성도들을 하나하나 돌보고 섬기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목회자가 주로 섬김을 많이 받았지만 여기서는 목회자가 성도들을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이런 부분에 감사하고 있습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 담임 남덕중 목사 ©김대원 기자

니다. 목회자는 진정으로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목사가 라스베가스에 처음 온 것은 2007년이다. 이 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이 첫 개척목회의 시작이었다. 그러다가 2013년 북미주개혁장로교회(CRC) 소속의 한 교회와 합병했고, 이후 필그림교회 담임으로 현재까지 교회를 성실히 이끌어가고 있다. 교회는 11년이 됐지만 남 목사로서는 라스베가스에서 2007년 교회를 개척한 이후 줄곧 한 교회에서 1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개척교회만 맡아 사역했



필그림교회 단합대회와 성탄예배(오른쪽 아래)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교회 측 제공

던 남 목사는 한국과 미국의 목회 차이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에서 10년간 목회를 했지만 이민 교회는 마음 말이 많이 다른 곳이었습니 다. 특히 라스베가스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분들이 많았고 그렇다 보니 목회에 있어서도 성도들이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들을 잘 보살펴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상처들을 잘 돌보고 보듬을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척 초기부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면서 목회자와 성도간의 관계성이 돈독해졌고 제자훈련을 그 바탕 위에 집중했기에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 목사가 라스베가스를 오게 된 배경은 다소 독특하다. 친구 목사가 필치고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역을 전적으로 돕기 위해 가족들을 아프리카로 가게 했는데, 친구 목사가 아프리카 선교를 그만 두게 된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비워서 돕던 사역이 갑작스럽게 중단된 상황이 문 제였지만 당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던 두 딸들은 한국으로 다시 와서 다닐 학교가 없었다.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다 미국행을 결정했다.

처음 남 목사의 미국에서의 목회는 라스베가스의 어느 다른 한인교회들보다는 사정이 나아 보였다. 집에서 드리던 예배가 상가교회로 옮겨간 후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제대로 된 시설이 갖춰진 성전으로 이전을 했다. 교회를 꾸준히 찾는 새로운 성도들이 있었고, 예배팀도 특별히 잘 훈련이 되어서 당시 지역에서는 최고의 장비와 팀원을 갖춘 찬양팀이 꾸려졌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 전적인 사역의 초점을 예배에 맞추던 시기였다. 또 한국에서처럼 성도들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목형 목회를 하던 때였다. 모든 사역들이 순조롭게 계속될 것 같았지만 이후 뜻하지 않은 두번의 우여곡절을 겪게 된다. 교회 외부에서 유입된 사람들이 무리를 형성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들 몇



2019년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초청 집회가 라스베가스 필그림교회에서 열렸다. ©교회 측 제공

몇과 규합해서 나가는 일이 두 번이나 연달아 발생한 것이다.

“예배도 은혜가 있었고 잘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성도들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의 혼란을 극복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 신앙 안에서 견고히 세워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것이 제자훈련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본격적인 제자훈련이 도입된지 3년, 현재 필그림교회는 예배도 회복됐고 여기저기서 훈련의 결실들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제자훈련 도입에 있어 시행착오도 몇 차례 있었다. 라스베가스 한인들이 너무 바빠서 마음 받아 달라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는 걱정과 그래도 반드시 제자훈련을 자리잡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럴수록 제자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남 목사의 생각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확고해졌다. 그런 과정을 거쳐 현재 제자훈련은 필그림교회의 중심적 사역으로 자리잡았다.

“제자훈련이 자리잡기 전까지 어려움은 많았지만 저는 그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제자훈련을 위해 이 사람들에게 보내셨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제자훈련은 성도들을 영적 리더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리더로서 사역을 위임 받아 담임목사와 함께 사역을 해 나가고 더욱 사역을 확장해 가는데 제자훈련의 목표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제자가 되면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교회와 한인들간의 접촉점이 잘 없는 라스베가스에 복음이 더욱 잘 뿌려지게 될 것입니다. 라스베가스의 대부분의 한인들이 타주에서 유입되는데, 이들 안에는 굳이 교회 중심적이지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선교에 있어 복음의 접촉점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집에서 예배를 시작해, 상가교회로 옮겨가고, 현재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자리잡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남 목사는

“교회 내적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다면, 다른 방향으로 성도들을 가르쳐줘야 하는데 그것이 선교라고 판단해 현재 7개 선교지를 집중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를 후원하면서 가까운 곳에는 단기선교를 떠나는데 하나님님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것을 느낍니다.”

가까운 멕시코의 경우 물품을 직접 들고 가서 사역하기도 하고 교회 건물 건축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토론토 큰빛교회 원로 임현수 목사와의 아마존 떼페공동체 선교를 협력하게 됐다. 임 목사를 초청해 교회에서 행사를 가졌는데 임 목사가 북한에 억류되기 전 마지막 사역지도 아마존이었고, 자유의 몸이 된 이후에도 처음 찾아가던 곳이 아마존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아마존 선교를 위해 서로의 뜻을 모으게 됐다. 이외에도 필그림교회는 현재 선교사역으로 니카라과에는 선교 도서관을 세우는 일에 협력하고 있고, 필리핀도 선교사를 통해 미션스쿨을 돕는 사역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도 열심보다는 방향을, 속도보다는 목적을 우선시하는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성장보다 본질이 먼저고 건강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본질을 붙들고 건강하면 성장은 덩어리 주시는 것, 그것이 필그림교회의 성장관입니다. 그리고 성장의 목적과 방향은 ‘주는 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가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한만큼 지역을 섬기고 세계를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라스베가스 복음화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아름다운 사역공동체로서 필그림교회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김대원 기자

센터메디컬그룹과 함께 가정의달 맞이 무료 사진 찍어주세요!

가족들과 따뜻하고 푸근한 마음을 나누는 가정의 달. 센터메디컬그룹에서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가정의 달이니 만큼 가족사진이나 리마인드 웨딩 등을 찍을 수 있는 '무료사진촬영'이벤트이다. 이 이벤트는 디지털 시대에 사라져가는 사진관 컨셉을 잡아 시니어들의 특별한 추억을 담기 위해 기획되었다. 특별히 센터메디컬그룹 가입환자가 아니어도 이달을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약을 받아 일주일만에 예약이

마감되는 큰 호응을 얻었다. 독사진을 비롯하여 가족사진, 리마인드웨딩 촬영, 우정 촬영 등 많은 버전의 촬영이 가능하다. 사진관이 많이 사라진 오늘 날, 시니어분들이 옛 추억을 상기하기 위해 행복한 시간을 마련했다고 귀뚱했다. 예약을 놓친 시니어들은 아쉬워하며 다음에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길 희망했다. 센터메디컬측은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사진행사를 기획해보겠다고 전달했다.

센터메디컬그룹은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회에 더 많은 혜택을 돌리고, 한인 시니어들을 위한 행사를 더욱 적극적으로 기획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센터메디컬그룹의 다른 혜택이 궁금하다면 센터메디컬그룹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714-904-1701) 김민선 기자



토렌스조은교회 선교 기금마련 골프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토렌스조은교회(담임 김우준 목사)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지난 4월 27일 로스 버디스 골프코스에서 교회 선교부(부장 신주희 안수집사) 주관으로 열렸다. 교인들과 게스트 등 총 108명이 참가해 Straight Tee 방식으로 치러진 이날 골프 대회에서는 진상식 성도가 1오버파 발군의 실력으로 영예의 메달리스트가



토렌스 조은 교회 선교 기금마련 골프대회 되었으며 캘러 웨이 방식으로 선정한 썸

피안은 남자 Paul Kim 성도, 여자 전미향 성도가 각각 3 under par로 남녀 썸 피안에 선정됐다. 이번 골프 대회를 통해 모금한 선교 기금은 2024년 토렌스조은교회가 계획 중인 해외 단기 선교지 10곳, 국내 단기 선교지 3곳 등 총 13번의 단기 선교를 후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번호 제24-082(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험 연차)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험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자가 가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채권보증을 위해 매 결산마다 일부공제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씨티교회 ‘어린이날 매직콘서트’... 지역 주민 1천여 명 참여 성황



어린이날을 앞두고 28일 매직콘서트가 열렸다. ©이지희 기자



이번 매직콘서트는 지역 주민의 큰 호응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서울씨티교회

양원역 작은도서관, 지역사회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하나님 사랑과 복음 전하는 교량 역할, 교회 문턱 낮춰”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씨티교회(조희서 담임목사) 분당은 매직콘서트를 보기 위해 어린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온 지역 주민 1,000여 명으로 가득 찼다. 공중을 부양하는 테이블, 매듭이 분리되는 손수건, 갑자기 물건이 나타나는 퍼포먼스뿐 아니라, 무대에 오른 관객이 마음속으로 상상한 것들을 기막히게 알아맞히는 멘탈리스트쇼까지 1시간 동안 꽉 채워진 공연은 그야말로 시끌벅적한 축제 현상이었다.

5월 가정의 달과 어린이날을 맞아 서울씨티교회가 운영하는 양원역 작은도서관이 도서관 회원들과 지역 주민을 위해 ‘어린이날 매직콘서트’를 열었다. 지난 2022년 7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양원역 작은도서관 김희숙 관장은 “최근 서울 중랑구 양원지구가 개발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다른 지역에서 새로 이주해 온 주민이 많다”며 “중랑구에 터전을 잡고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하루빨리 이곳에 정을 붙일 수 있도록, 동 주민이 되신 것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의미에서 매직쇼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지난 몇 년간 이웃으로 함께 해 오며, 도서관 회원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께 어린이날을 맞아 좀 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매직콘서트에는 마술사 주호영 씨가 초청돼, 스타일리시하고 차별화된 스토리텔링 형식의 마술을 선보였다. 또 서울씨티교회는 참석한 모든 가정에 교회가 준비한 시중가 2만 원 상당의 푸짐한 과자를 담은 선물상자를 나누주었다.

매직콘서트에 참석한 아이들은 “몽땅 다 재밌었는데 (마지막에) 풍선 터뜨리는 것이 기억에 남는다”, “하얀색 풍선을 뽑는 것과 강아지 풍선이 재밌었다”, “생각했던 000(연예인) 얼굴이 나와서 신기했다”며 소감을 전했다. 부모들은 “마음을 읽는 마술사라고 하시며 관객과 소통하는 매직쇼

가 인상 깊었다”, “친구 초청으로 아이와 같이 왔는데, 편하고 재미있게 잘됐다”, “재미있었는데, 저번처럼 비둘기 퍼포먼스도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지난번 ‘김창욱 콘서트’엔 엄마들끼리 와서 세 명이 눈물 흘리면서 봤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도서관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서 정보를 계속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매직콘서트에 참석한 중랑구청 문화관광과 김진민 과장은 “중랑구의 작은도서관이 54개이고, 이 중 교회가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20여 개”라며 “도서관이 옛날처럼 책만 빌리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나 체험 활동도 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 특히 서울씨티교회의 양원역 작은도서관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 있고, 동원도 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담임목사님이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생각이 젊으시다고 생각한 것이, 서울씨티교회는 코로나 시절에도 드라이브인 예배를 비롯해 이전부터 색다른 것을 많이 했다”고 말하고 “중랑구교구협의회도 지역 주민을 활발하게 섬겨주어서 저희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서 서울씨티교회 담임목사(중랑구교구협의회 회장)는 “우리 교회는 카카오톡 같은 SNS로 지역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연결되고 있다”며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교인들이 열심히 한다”며 일선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치켜세웠다.

양원역 작은도서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눔을 실천하는 조희서 서울씨티교회 담임목사의 목회철학과 전 교인 및 운영자들의 후원과 봉사를 통해 지역 주민과 호흡하며 날로 성장하고 있다. 문화, 관광, 여행 도서를 비치한 특화된 도서관인 동시에 문화강좌 및 교육, 공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주민들과 지속적

인 만남을 갖고 있다.

김희숙 관장은 “신자들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비신자들도 함께 어우러지고 신뢰와 우정을 쌓아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이 지역사회로 전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량 역할을 감당하고자 한다”며 “또한 교회 도서관으로서,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답장을 허무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관장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을 믿고 실천해 왔고, 도서관도 그에 합당한 일들을 작은 것부터 실행하려고 한다”며 “교회 인근의 아파트 단지에 유초등 자녀들을 둔 젊은 세대가 정들이 많다. 젊은 세대 부모들과 어린 자녀들이 영혼육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원역 작은도서관은 지난 2월부터 SF교육그룹에서 개발한 ‘머리글양산교실’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 미디어에 중독되지 않고 집중력과 기억력, 학습 능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교육 콘텐츠로, 서울씨티교회가 한 학생에게 1년 동안 월 5만 원, 연 6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지난 3월 설명회를 갖고, 4월 1일 학습관을 열었으며, 현재 교회학교 아동 4명을 포함해, 지역 아동 16명을 대상으로 학습을 제공하고 있다.

또 고액의 영어학습 지원이 어려운 자녀들에게는 영어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900여 권의 영어 원서를 이미 마련했고, 올 하반기부터 학습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희숙 관장은 “주일만 교회학교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교회학교의 한 부분으로 어린이들과 다음세대를 이끌 우리 청소년들이 부각되려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해마다 중랑구에서 추진하는 북페스티벌, 망우만끼 마을축제에 올해도 참여하여 이웃들과 교류의 기회를 갖고, 매월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선교편지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긴다(1)

(고후 3: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나갈랜드주 디마푸르에 큰 사역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는 곳이 5월 3일이면 힌두 메이데이들이 기독교 쿠키족들에게 대대적으로 공격을 감행한 지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일단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므로 일찍 피하라고 하여, 방학이 시작되는 날보다 일찍 학교를 떠나 나갈랜드 디마푸르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5월 3일 기독교 쿠키족들은 만반의 방어 태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의 기사가 나갈랜드주의 디마푸르로 테러다주는 날짜를 앞당기자고 해서 디마푸르 집회 날짜를 4월로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직 총장 부부가 차남 아들 출산 방문을 한다고 동행하여, 가는 시간을 원래대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일찍 가면 집회를 많이 인도해서 좋고, 전직 총장 부부와 함께 가면 말뚱마가 있어서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4만 명의 난민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16시간 가야 하는 미조람주 아이자울에서 모든 물건을 공급되어 가격이 다른 도시에 비하여 두 배 인데, 잘 버티고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국의 진라면과 삼양라면이 이곳의 가게에 있어서 신기하여 사다가 먹었습니다. 한국 가격의 5배입니다. 그런데 한국보다 싼 것이 있습니다. 중국 와이셔츠 웃인데, 00 반팔 와이셔츠가 한국 돈으로 1,600원입니다. 한국이 너무 잘살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종종 현지 교회에서 초청을 합니다. 교인들이 아이들이 30% 이상입니다. 설교를 어른에 맞추어서 준비했다가 어린이와 청년들을 위한 주제로 바꾸어서 설교합니다. 힌두가 기독교 탄압을 아무리 하여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적으로는 절대 절명의 위기이지만 내적으로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쿠키 기독교인들이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유함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기적입니다.

기독교 난민들을 위한 사역
각 마을에 총장님들이 있습니다. 일부는 목사님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땅을 드릴 것이나 난민들의 집을 지어 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시리라 믿습니다.

- 1) 작년 11월에 난민 158가정에 1,000루피를 지원했습니다.
- 2) 작년 11월과 12월에 2차로 겨울 잠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 3) 작년 12월 성탄절 선물로 3차 담요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 4) 4차 난민 목사님 집짓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5) 5차 난민 성도님들 집짓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 기독교 쿠키족들이 평화 거리 행진을 하는 모습 ©현지 사역자

6) 6차 난민들 자립운동을 준비 중입니다.(돼지, 닭, 염소, 소, 사주구 자립하도록 함)

저의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현지에 적응이 되어가나 봅니다. 현지인들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점이 보이지 아니하고 장점만 볼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이곳은 우기가 시작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어와서, 자다가 천정에서 비가 새서 놀라서 일어나 보니 새벽 2시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깨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택 공사를 마쳤지만 다시 손을 여러 곳을 보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붕에서 비가 새서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네 잘살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기적입니다. 사택이 부역 하나, 땅 하나이지만, 35년 선교 사역 중에 선교 현장에 사택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1. 5월 2일, 3일 디마푸르의 현지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여 주세요!

2. 저의 새빛교회 마무리 공사와 성물들이 채워지게 하소서 (의자/마이크시스템/전기 시설/천정 공사/바닥 타일/강대상/강대상 의자/드럼) 한국에서 드림을 가지고 왔는데 저의 신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가서, 저의 교회로 찾아올 방법이 없습니다. 음향 시설도 가지고 가서 채플 시간과 저녁 예배 시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발전기도 학교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학생들과 전직 총장께는 잠시 빌려준다고 했는데 채플실에 완전 세팅을 했습니다.

3. 안양사랑선교관, 동선선교센터의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부족한 물질을 채워 주세요!

3. 난민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위한 집짓기 운동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4. 난민 학생들과 마약 중독자였던 학생들을 잘 가르치게 하옵소서!

5. 41,425명의 난민을 잘 돌볼 수 있는 영권, 인권, 물권을 주옵소서!

6. 과부 가정과 쌍둥이 가정, 선교관 건축이 이루어져서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소서!

7. 7월 18일, 19일, 20일 디마푸르 부부세미나를 통해 최초 예년동산의 부부회 회복되게 하소서!

8. 7월 29일-8월 3일까지 6일 동안 진행하는 코스호이 새생명교회 부부학교가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계속> 인도 현지 사역자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지켜요!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손 씻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씻기



구분 사용하기

날음식과 조리음식 구분
칼·도마 구분 사용



익혀먹기

육류 중심온도 75℃
(어패류 85℃)
1분 이상 익히기



끓여먹기

물은 끓여서 먹기



세척·소독하기

식재료·조리기구는
깨끗이 세척·소독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냉장식품 5℃ 이하
냉동식품 -18℃ 이하

美 남침례교인 58% “정부가 특정 종교 선호해서는 안 돼”

대부분의 남침례교인들은 모든 미국인들의 종교 자유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정 종교를 선호하지 않는 정부를 지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는 최근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문화참여센터(Land Centre for Cultural Engagement)의 후원으로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남침례교인 중 58%와 지도자 중 62%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선호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교인의 약 3분의 1(36%)과 지도자 중 33%는 정부가 기독교를 선호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요 지도자의 95%와 교인의 92%가 “종교 자유는 모든 사람과 종교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한 교인의 66%와 지도자의 75%는 종교 자유가 기독교 신앙만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믿지 않으며, 교인의 81%와 지도자의 85%는 정부가 특정 종교를 타종교보다 선호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스콧 맥코넬 대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질문을 받은 결과, 많은 수의 남침례교인들은 모든 종교를 포괄하게 종교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종교 자유를 원한다”고 했다.

이 연구는 지난 1월 3일부터 12일까지 남침례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로 오차범위는 ±5.6%포인트이다. 또한 1월 9일부터 2월 9일까지 답안자를 제외한 남침례회 주요 직책에 있는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라이프웨이(Lifeway) 보고서에 인용된 랜드 문화 참여 센터(Land Centre for Cultural Engagement) 소장 댄 달링(Dan Darling)은 “이러한 발견은 침례교인들이 일반적인 교회와 국가의 역할에 대한 역사적인 침례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말했다.

벤포드 목사는 14세에 설교 여행을 시작하여 1944년 12월 25일에 첫 설교를 했다.

기네스 웹사이트는 “1947년 벤포드 목사는 텍사스 주 텍사스 시티에 있는 FM 존슨 목사라는 친구를 방문하고 있었다. 존슨 목사는 라이징스타 선교침례교회에서 (객원목사로) 설교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목이 아팠다. 존슨 목사는 벤포드 목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설교할 수 있는지 물었다”면서 “벤포드 목사가 설교한 후 라이징 스타 선교침례교회는 기뻐하며 그(벤포드 목사)의 가르침/설교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다 그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기네스 웹사이트는 “1950년 라이징 스타 선교침례교회는 교회를 위한 목사를 찾고 있었다”라며 “그들은 벤포드 목사를 찾았고 그를 발견했을 때, 다시 와서 라이징 스타 침례교회를 위해 설교할 것인지 물었고 그는 1950년 6월 셋째 주일에 그렇게 했다. 1950년 8월 27일, 그들은 벤포드 목사에게 다시 연락했고 이번에는 교인들이 그를 텍사스 시티에 있는 라이징 스타 선교침례교회의 새 목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폭스26에 따르면 2024년 부활절 주일 벤포드 목사는 교회 성소에서 마지막 설교를 전했다.

그의 딸 모키샤 벤포드(Mokysha Benford)는 “정말 믿을 수 없다”라며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했다.

벤포드 목사는 그의 광범위한 사역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봉사활동과 교회 청소년들과의 사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딸 올란다 프록터(Yolanda Proctor)는 폭스26에 “그는 때때로 뱀에 확실히 달고 지역 사회에 투표하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조직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벤포드 목사는 견학이나 휴가에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종종 교회 버스를 운전했다. 그의 가족은 교회와 함께 이 여행을 통해 디트로이트와 캘리포니아까지 여행했다.

벤포드 목사의 자녀들은 그를 강력한 가치관을 심어준 롤 모델로 기억했다. 라이스대학교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의 아들 토마스 벤포드(Thomas Benford)는 생산적인 삶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이 평가했다.

이 연구는 특

히 정치 시점에 남침례회를 둘러싼 토론에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또한 미국 역사에서 남침례회의 역할로 인해 기독교가 특별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남침례회 신자들이 분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가운데 90% 이상은 국가 건국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반면, 51%는 기독교가 특권을 누린다는 생각에 반대하고, 38%는 동의했다.



©Pixabay

그는 “침례교인들은 공공 광장에서의 강력한 참여를 원하며 자유 국가의 자유로운 교회를 굳게 믿는다. 이 연구는 특

이미경 기자

동일 교회 최장 기간 재직 기네스 기록 보유 목사 별세



벤포드 목사는 14세에 설교 여행을 시작하여 1944년 12월 25일에 첫 설교를 했다.

기네스 웹사이트는 “1947년 벤포드 목사는 텍사스 주 텍사스 시티에 있는 FM 존슨 목사라는 친구를 방문하고 있었다. 존슨 목사는 라이징스타 선교침례교회에서 (객원목사로) 설교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목이 아팠다. 존슨 목사는 벤포드 목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설교할 수 있는지 물었다”면서 “벤포드 목사가 설교한 후 라이징 스타 선교침례교회는 기뻐하며 그(벤포드 목사)의 가르침/설교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다 그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기네스 웹사이트는 “1950년 라이징 스타 선교침례교회는 교회를 위한 목사를 찾고 있었다”라며 “그들은 벤포드 목사를 찾았고 그를 발견했을 때, 다시 와서 라이징 스타 침례교회를 위해 설교할 것인지 물었고 그는 1950년 6월 셋째 주일에 그렇게 했다. 1950년 8월 27일, 그들은 벤포드 목사에게 다시 연락했고 이번에는 교인들이 그를 텍사스 시티에 있는 라이징 스타 선교침례교회의 새 목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폭스26에 따르면 2024년 부활절 주일 벤포드 목사는 교회 성소에서 마지막 설교를 전했다.

그의 딸 모키샤 벤포드(Mokysha Benford)는 “정말 믿을 수 없다”라며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했다.

벤포드 목사는 그의 광범위한 사역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봉사활동과 교회 청소년들과의 사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딸 올란다 프록터(Yolanda Proctor)는 폭스26에 “그는 때때로 뱀에 확실히 달고 지역 사회에 투표하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조직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벤포드 목사는 견학이나 휴가에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종종 교회 버스를 운전했다. 그의 가족은 교회와 함께 이 여행을 통해 디트로이트와 캘리포니아까지 여행했다.

벤포드 목사의 자녀들은 그를 강력한 가치관을 심어준 롤 모델로 기억했다. 라이스대학교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의 아들 토마스 벤포드(Thomas Benford)는 생산적인 삶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이 평가했다.

벤포드 목사는 14세에 설교 여행을 시작하여 1944년 12월 25일에 첫 설교를 했다.

기네스 웹사이트는 “1947년 벤포드 목사는 텍사스 주 텍사스 시티에 있는 FM 존슨 목사라는 친구를 방문하고 있었다. 존슨 목사는 라이징스타 선교침례교회에서 (객원목사로) 설교할 예정이었지만 그는 목이 아팠다. 존슨 목사는 벤포드 목사에게 자신을 대신해 설교할 수 있는지 물었다”면서 “벤포드 목사가 설교한 후 라이징 스타 선교침례교회는 기뻐하며 그(벤포드 목사)의 가르침/설교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가 필요하다 그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기네스 웹사이트는 “1950년 라이징 스타 선교침례교회는 교회를 위한 목사를 찾고 있었다”라며 “그들은 벤포드 목사를 찾았고 그를 발견했을 때, 다시 와서 라이징 스타 침례교회를 위해 설교할 것인지 물었고 그는 1950년 6월 셋째 주일에 그렇게 했다. 1950년 8월 27일, 그들은 벤포드 목사에게 다시 연락했고 이번에는 교인들이 그를 텍사스 시티에 있는 라이징 스타 선교침례교회의 새 목사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폭스26에 따르면 2024년 부활절 주일 벤포드 목사는 교회 성소에서 마지막 설교를 전했다.

그의 딸 모키샤 벤포드(Mokysha Benford)는 “정말 믿을 수 없다”라며 “그는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했다.

벤포드 목사는 그의 광범위한 사역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는 봉사활동과 교회 청소년들과의 사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딸 올란다 프록터(Yolanda Proctor)는 폭스26에 “그는 때때로 뱀에 확실히 달고 지역 사회에 투표하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궁핍한 사람들을 돕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고, 가족들을 위한 행사를 조직하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벤포드 목사는 견학이나 휴가에 가족과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 위해 종종 교회 버스를 운전했다. 그의 가족은 교회와 함께 이 여행을 통해 디트로이트와 캘리포니아까지 여행했다.

벤포드 목사의 자녀들은 그를 강력한 가치관을 심어준 롤 모델로 기억했다. 라이스대학교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그의 아들 토마스 벤포드(Thomas Benford)는 생산적인 삶을 위한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준 아버지와 어머니를 높이 평가했다.

이 연구는 특

IMF “올해 亞 경제 4.5% 성장 전망…中 부동산은 위험”

IMF 아태 지역 경제 전망 보고서
6개월 전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아시아 경제가 인플레이션 완화 등의 긍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29일(현지시간) IMF 보고서와 CNBC에 따르면 IM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아시아 경제가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6개월 전 내놓은 전망치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내년도 전망치는 4.3%로 그대로 유지했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태 국장은 “2024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망이 밝아졌다”며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완화되면서 이 지역 경제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IMF는 이번 상향 조정에 대해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측면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에 있었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제조업 활동 감소와 서비스업 부진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인도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라면서, “공공 투자가 여전히 중요한 동력”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인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3조7000억 달러의 세계 5위 경제대국이며, 2027년까지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IMF는 아시아에서의 높은 소비 성장에도 불구하고 통화 긴축 원자재 가격 하락, 공급망 혼란의 진정으로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IMF는 민간 소비 강세가 아시아 내 신흥 시장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IMF는 아시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 문제를 꼽기도 했다.

이는 소비를 약화시키고 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높여, 다른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IMF는 중국에 대해 “생존 불가능한 부동산 개발업체의 퇴출을 가속화하고, 주택 프로젝트의 완공을 촉진하고, 지방 정부의 부채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유로존 4월 소비자물가 2.4%↑로 보합…“시장 예상 일치”

유로존 20개국 체감경기를 반영하는 2024년 4월 소비자 물가지수(HICP 속보치)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고 유럽연합(EU) 통계청이 30일 발표했다.

마켓워치와 AFP, RTT 뉴스 등에 따르면 EU 통계청은 이날 4월 유로존 HICP가

전월 2.4% 상승과 보합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시장 예상 중앙치와도 일치했다.

다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둔화하면서 유럽중앙은행(ECB)이 오는 6월에 금리인하에 나선다는 관측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변동이 심한 식품과 에너지, 알코올, 담배를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전월 2.9%에서 2.7%로 저하했다.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의 물가 상승률도 3월 4.0%에서 3.7%로 감속했다.

뉴질랜드, 초·중·고등학교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

총리 “학업 방해 요소 제거해야 할 때”

뉴질랜드가 전국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뉴질랜드 매체 헤럴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에 시작된 2024년 2학기부터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해당 정책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은 등교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거나 사물함이

나 가방에 보관해야 한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학부모가 학생에게 연락할 일이 생길 경우 학교 사무실을 통해 자녀에게 연락할 수 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 장애가 있거나 학습 지원이 필요한 경우,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제외된다.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어길 경

우 학생에게 내리는 제재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여당인 국민당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내놔던 공약이다. 크리스토퍼 러크 뉴질랜드 총리가 취임 이후 우선순위 정책으로 추진했다.

러크 총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행복한 학교 내 휴대전화 금지의 날”이라며 “이제 아이들이 배우고 성취할 수 있도록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환경도 도시도 활짝 시활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주)오뚜기 창립 55주년



당신과 꽃피운 오뚜기 55년

55년 동안
여러분의
사랑 덕에
응원 덕에
행복 덕에

오뚜기는
더 맛있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난 55년과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사랑에
더 맛있게 보답하는
오뚜기가 되겠습니다

법원, '2천 명 근거' 요구... 복지부 "충분한 설명·근거 있다"

교육부 "법원 요청, 대입 걱정 안 해도 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빠른 시일 내에 충실히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그간 충분히 설명해왔고, 관련

자료도 제시할 수 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서울고법은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정부 측에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사법부가 의대 정원 결정의 근거를

따져보겠다는 제동을 건 것이다.

복지부는 기존에 제시한 의사 수 추계 보고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증원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5년 의사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연 2000명씩 늘리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된 기본 틀은 10년 뒤 의사 부족분 1만

5000명 중 5000명은 효율화로 해결하고 나머지 1만 명에 대해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법원의 요청과 무관하게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예정대로 이달 말 대입 전형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이나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노동의 가치 반드시 보호할 것"

"근로자 일터 더 안전·공정하게 만들 것"



윤석열 대통령(사진)은 근로자의 날인 1일 "저와 정부는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노동은 개인의 자유와 가족 행복을 지키는 동시

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며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은 근로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소중한 노동의 가치를 반드시 보호할 것"이라며 "근로자 여러분의 일터를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노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근로자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박용국 기자

이재명 "노동 밖의 노동자 늘어... 모든 노동자 권익 지키겠다"

"일하는 사람 존중받는 사회 만들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는 1일 노동절을 맞아 "노동 밖의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급변하는 노동환경 변화에 맞춰 모든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노동자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우리 노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성장과 산업대전환으로 대량

실업 위험이 높아지고, 플랫폼 노동·특수고용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서고 통 받는 '노동 밖의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책무"라며 "노력하는 만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 땀의 가치가 공정한 대접받는 나라로 한발 한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용국 기자

국힘, 민주당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협의 진행

윤재욱 "조사위 구성·권한 등 '독소조항' 협의할 것"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며 "조사위 구성과 공정성, 조사위 활동 관련 권한으로 입법 내용과 맞지 않는

부분, 독소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가 있었다며 협의를 거쳐 이태원 특별법을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했던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당초 3일로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일이 9일로 연기된 이유에 대해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이철규 의원 불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경선 공정성 차원에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박용국 기자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상황'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시스

이라크, 동성애 처벌 법안 통과... 최대 15년 징역형

이라크가 동성애를 범죄화하고 최대 15년 징역형까지 규정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국제 사회는 이라크의 이번 법안 통과가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범죄화와 처벌 규정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라크 의회는 27일 기존 성매매금지법을 개정한 '성매매 및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동성 간 성관계를 최소 10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성애나 성매매를 조장하는 이에게는 최소 7년 징역형을, 트랜스젠더 등 성전환 수술 관련자에게는 최대

3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초기에는 동성애에 대한 사형까지 논의됐으나 서방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철회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이라크 의회의 결정에 국제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고 규탄했고, 국제

앰네스티도 "차별과 폭력을 법으로 명문화했다"며 강력 비난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도 "이 법은 이라크 사회에서 가장 위험에 처한 이들을 더욱 위협할 것"이라고 밝히고, "인권과 경제적 다양성을 훼손해 외국인 투자 매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은혜 기자

트럼프 "한국 부유한 나라... 주한미군에 적절한 비용 내야"

재선 시 비용 부담 미흡하면 철수 가능성 시사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현지 영상 캡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이 부유한 나라임에도 미군 주둔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만약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국이 적절한 수준의 방위비 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30일(현지시간)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은 4만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데 사실상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주길 바란다"며 "이제 한국이 나서서 비용을 지불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들(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는데, 우리는 사실상 그들의 군대 대부분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동의했는데 아마 내가 떠난 지금은 거의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완전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향후 재선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

이다. 그는 나토 동맹국에 대해서도 비용 부담을 거듭 요구해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의 대만 침공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지만, 실제 대만 방어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해서는 "한때 두 국가 해결책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지금은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낙태권과 관련해서는 각 주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 친위 성향 대법관을 지명해 낙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입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계획도 내비쳤다. 관세를 통해 미국 경제를 외국 제조업 지배에서 해방시키고 산업 부활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홍은혜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쿨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서울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하며 행동에 돌입

서울대학교 병원 의과대학 교수 4명이 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본격화한 지 약 일주일 만의 일이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 위원장은 사직서가 수리될 때까지 병원 출근을 하지 않거나, 출근하더라도 진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총장과

병원장이 사직서를 수리할 때까지 병원에 가지 않거나 출근해도 진료는 하지 않고 남은 비대위 활동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자신의 외래 진료 예약 환자 1,900명에 이르는 점을 언급하며 "환자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기자회견에서도 "5월이 되면 의료 붕괴가 100% 올 것"이라며 사직 의

사를 분명히 했었다.

방 위원장을 비롯한 서울의대 비상대책위원회 수뇌부 4명은 5월 1일자로 병원을 떠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전공의 이탈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한계에 달하면서 주 1회 교수 휴진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휴진 대란은 없지만 환자들의 불안은 높아지고 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의사들은 주 1회 셧다운을 중단하도록 논의



방재승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뉴스시스

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나래 기자

코로나19 방역 체제 대폭 완화... 병원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본격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어

정부가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관심' 단계로 낮추고 그간 유지해온 방역 조치들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병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기준도 대폭 단축되는 등 본격적인 엔데믹(풍토병화)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 단계로 조정됐다. 이로써 2020년 1월

첫 확진자 발생 후 4년 4개월 만에 팬데믹 상황이 종료되고 엔데믹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었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에 대한 선제 검사도 권고 사항이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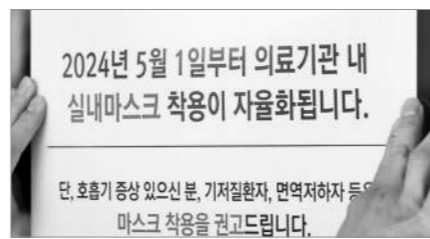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도 '검체 채취일로부터 5일'에서 '가침, 발열 등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으로 크게 완화됐다. 증상 호전 후 하루가 지나면 일상생

활 복귀가 가능해진 셈이다.

코로나19 검사비 지원도 고위험군 유증상자로 제한된다. 무증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부 중증 환자 입원치료를 지원도 중단된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은 먹는 치료제 건강보험 지원을 받지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비는 본인 부담해야 한다. 파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본인 부담금은 1인당 약 5만 원이다.

백신 무료 접종도 2023-2024절기까지만 유지되며 2024-2025절기부터는 고위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병원 관계자가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시스

험군에 한해 무료 접종이 제공된다. 이나래 기자

정부, 농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으로 유통비용 10% 이상 낮춘다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산지·소비자 유통 혁신 등 4대 전략

정부가 고물가에 대응해 농수산물 유통경로 다각화와 도매시장 경쟁 촉진 등으로 유통비용을 10% 이상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영도매시장의 공공성·효율성

제고,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산지·소비자 유통 혁신 등 4대 전략을 세웠다.

먼저 도매시장 운영 법안에 대한 지장 평가를 강화하고 위탁수수료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도매가격 변동성을 완화한다. 전자소송장 확대와 정가·수의매매 비

중 확대로 가격 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온라인 도매시장은 제도 개선으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고 거점 유통센터를 핵심 주체로 육성한다. 2027년까지 5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목표다.

산지 유통의 경우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100개소를 조기 구축하고 주요 품목의 취급물량을 50%까지 확대한다.

수산물 거점 위판장도 100개소를 현대화한다. 소비에서는 유통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공동구매시스템을 구축하고, 물류기 가격공시제를 도입해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체제로 유통 단계별 불공정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나래 기자

양대 노총, 노동절 대규모 집회...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거부 등 강력 투쟁"... 한국노총도 대정부 투쟁 예고

양대 노동조합연맹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1일 노동절을 맞아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024 세계노동절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했다. 서울에만 조합원 2만5000여명 등 전국에서 9만여 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은 지난 2년간 정부의 행보를 노동탄압과 노조파괴로 규정하며 정권 퇴진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노란봉투법

거부,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우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정부 정책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는 정권의 반노동 악행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총선 민심대로 정권 퇴진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고용노동청과 삼각지 등지로 행진할 예정이다.

한국노총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7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정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저지, 정년연장 등을 주장하며 대정부·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경찰은 불법 시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 아래 전국 163개 기동대 1만여명을 투입했다. 이나래 기자

4월 수출 13.8% 증가... 반도체·車 '쾌조'

무역흑자 11개월 연속... 올해 누적액 5년래 최대

지난 4월 수출이 13.8% 증가하며 7개월 연속 플러스 궤도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무역흑자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 호조세가 지속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수출액은 562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수입은 5.4% 늘어난 547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은 56.1% 급증한 99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자동차(67억 9,000만 달러)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력 15개 품목 중 13개 품목에서 실적이 증가하며 올해 최대 품목이 플러스 실적을 거뒀다. IT 품목은 2개월 연

속 전 품목 증가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대미 수출이 전년비 24.3% 늘어난 114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에 올랐다.

수입은 14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했지만 수출 호조에 힘입어 무역흑자는 15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11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올해 1~4월 누적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06억 달러로 2019년 이후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 관계자는 "리튬 가격 인상에 따라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며 "미국 투자 기업 증가로 대미 수출이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나래 기자

서울 강동구 입주물량 영향... 인근 하남시 전셋값도 하락세

올해 강동구 대규모 신규 입주로 전세수요 서울 안으로 이동

올해 서울 강동구에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잇따라 입주하면서 이 지역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강동구에 인접한 경기도 하남시 지역의 전셋값마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넷째주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에서 하남시 전셋값은 0.08% 하락했다. 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수도권(0.07%)과 경기(0.06%)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하남시 전셋값은 지난 2월 26일(-0.10%) 이후 9주 연속 내리막 길을 걷고 있다. 반면 서울 전셋값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수도권은 6월 말부터 1년 가까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하남 전세가격 하락은 서울 강동구에 올 초부터 대규모 신규 입주단지가 들어서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보인다. 올 1월 고덕동 '고덕풍 경제아파트', 3월 상일동 '힐스테이트 고덕', 6월 길동 '강동헤리티지' 등이 이어 11월에는 1만 세대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까지 입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 현장 모습. @뉴스시스

예정이다.

서울 내 새 전세 물량이 대거 공급되면서 기존 하남시에 거주하던 전세 수요자들이 서울 안으로 옮겨가는 분위기가 짙어지고 있다. 하남은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률이 둔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 조짐도 엿보인다.

수도권에서 전셋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지역은 하남시 외에도 과천시, 안성시, 광주시, 이천시, 파주시, 경제아파트, 3월 상일동 '힐스테이트 고덕', 6월 길동 '강동헤리티지' 등이 이어 11월에는 1만 세대 규모의 '올림픽파크포레온'까지 입주

이나래 기자

K-eco

with

ESG

ENVIRONMENT
탄소중립경영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는 국민을 위한 환경경영

SOCIAL
사회책임경영

포용적 환경서비스로 함께 성장하는 사회적책임경영

GOVERNANCE
준법윤리경영

공정중립의 가치를 구현하는 준법윤리경영

한국환경공단은 지속가능한 사회와 지구를 위해 ESG경영을 실천합니다

강준민 목사 “깊이를 상실한 시대의 슬픔”

방향해 만나교회 주일예배 설교 전례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 중인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는 만나교회에서 주일예배를 인도하며, “뿌리 깊은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2:6-7의 말씀을 전했다.

“영성이 무엇인가, 영성이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 쉽지 않다”라는 말로 시작된 그의 메시지는, “영성에 대해 오래 연구하며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는 정의를 내린 후,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그분의 성품을 닮는 것’에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그분의 지혜를 닮는 것임을 깨달았다’로 이어졌다.

그는 그 이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루야 되는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령님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또 요셉도 과업을 이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신이 거함으로 지혜롭고 명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그분의 뿌리 깊은 영성과 연결시키며, 즉흥적 흥미만을 좇아 부유하는 존재가 되어 버린, “깊이를 상실한 시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뿌리를 깊은 영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너무나 깊지 않기 때문이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빠르다. 쇼츠를 보면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재미는 있는데 피상적이고 깊이가 없다.”

“깊이를 상실한 시대의 슬픔, 마르바 단이라는 신학자가 한 얘기이다. 하나님은 재능이 있고 속도를 낼 줄 알고 빠른 사람보다는 깊이가 있는 사람 원한다. 이 세상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느린 사람들, 장애인들이 아니다. 세상을 망가뜨린 사람들은 너무 빠른 사람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는 이와 달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기 위해, 일부러 느리게 만드신다”고 말했다.

“아픔은 빠르고 무뇌화전도 빨랐다.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잘하고 하나님 이름까지 도용해 가면서 거짓말 했다. 하나님께서 압박 강에서 그를 치신다. 그가 절뚝거리고 느려진다. 그때부터 아픔의 삶이 변화된다. 자기 머리를 의지했던 아픔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서,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구절,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를 인용하며, 팬데믹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것 역시, 그들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골로새서 2:6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말씀 안에 네 가지 이미지가 나온다. 나무, 건물, 학교, 저수지 이미지(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가 본문에 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려 한다.”



새생명비전교회 강준민 목사가 방향해 만나교회에서 설교했다. ©만나교회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 용서가 없어졌다 한국 사회에 용서가 없어지고, 심판하자는 메시지만 한국 사회가 지금 정의 중독에 빠져 있어 창기를 품는 끝 없는 용서, 언제부터인가 이런 사랑이 없어졌다”

이어서 그는 한국의 교회가 ‘용서와 사랑’을 잃고 율법화되고 있다며, “제가 한국에 나와 보면 많은 교회들이 율법화되었다. 많은 교회들이 사랑이 사라졌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회에 용서가 없어졌다. 용서가 없다는 말은 율법화 됐다는 것이다. 이번엔 한국에 나와 보니까 온 나라에 심판하자는 메시지가 가득하다. 한국 사회가 지금 정의 중독에 빠져 있다. 나는 옳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것. 그래서 정죄가 많고 용서가 없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율법은 정죄한다. 감사처럼 죄를 고발한다. 복음은 사랑이고 용서하는 것이고 덮어 주는 것, 변호해 주는 것인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율법화돼서 사랑이 식어버리고 말이 거칠어지고 품격을 상

실해 버렸다. 복음은 옳은 소식이 아니다. 옳고 그름 따지는 건 법이다. 복음은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말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기와 같은 우리를 사랑 하셔서 예수를 만나게 해 준 것이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나는 창녀와 결혼하라고 하신다. 고멜이 도망가면 돈을 주고 또 사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사랑이 없어졌다.’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심판과 저주와 정죄 모든 걸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와 지혜와 거룩함을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과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억을 못 하시겠다고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용서

하신 사랑, 잊어버리는 사랑이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된다.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여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었다. 신약에서는 다르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가장 용서 받을 수 없는 자를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정신에 대해 전했다.

“예배에 관해 지은 죄가 가장 큰 죄이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버림받았다. 가인도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고 사울 왕도 예배를 잘못 드린 것이다.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가 없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내가 이스라엘 전 민족의 죄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전민족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대제사장이 되라고 하신다. 왜 그런 줄 아는가? 그날 이후로 아론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사람의 죄도 정지할 수가 없다. 이스라엘 민족에 어떤 사람의 죄도 아론보다 더 큰 죄가 없다. 가장 큰 죄는 간음죄도 심지어는 살인죄도 아니다. 가장 큰 죄는 영적 교만의 죄고 예배를 잘못 드린 죄인데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도 잘못 예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잘못 예배드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 같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는 7년 전 그의 아내에게 찾아온 폐암 선고와 이민목회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나무는, 그 어둠을

통과하며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고 강조했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인생이 어렵고 공고할 때 뿌리를 내린다.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 그 뿌리 내리는 곳은 어두운 곳이다. 그런데 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쓰신 이들은 다 어두운 가운데 키우셨다. 요셉을 감옥에서, 다윗을 가가 막힌 수렁과 아달람 굴, 광야에서 키우셨다. 사도 바울의 생의 마지막을 보면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제 생애에도 어둠을 많이 겪었다. 영적 침체 들어가고 갑자기 공황장애 오고 깊은 우울증, 의욕 상실, 의심이 들어오는데 목사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사라져 버렸다. 내 병을 의사가 못 고칠뿐 만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믿음이 생겼다. 그렇지만 매주 강단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설교해야 했다. 그 어둠을 때 제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기 시작했다. 제 인생 가운데 어려웠던 그 때 어둠 속에서 생명을 키우시고 흑암 중에 부활을 감취 두시는 걸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 빛이 더 밝아진 걸 깨달았다.”

“7년 전에 제 아내가 폐암 선고를 받고 왼쪽 폐를 전부 절단했다. 밤이 되면 아내가 약을 먹기 위해 일어나 30분 동안 찬양했다. 그 밤에 부른 노래를 잊을 수가 없다. 그때 깊이 예수님께 뿌리를 내렸다. 많이 울고 찬양하고 그 어두운 밤을 통과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여러분 생애, 철쭉 같을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그때 주님께 깊이 뿌리 내리라.” 주디 한 기자

“그리스도인의 삶, 온전하게 하는 여가란?”

백광훈 원장, ‘그리스도인의 여가 문화’ 주제로 메시지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사진)이 최근 “그리스도인의 여가 문화”라는 제목의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백 원장은 “휴가철이 다가왔다.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고 이런 저런 계획을 마련해보면서 정작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여가를 보낼까 진지하게 고민해 본적이 우리 에겐 별로 없는 것 같다”며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는 것 못지않게 여가

라는 쉼의 자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하게 하는 여가란 무슨 의미일까를 고민한다면, 우리는 ‘안식일의 의미’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여가, 곧 쉼의 의미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것이 안식일이 때문”이라며 “400년간 종살이한 이스라엘민족에게 안식일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쉼을 누릴 수 있었던 최초의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안식은 해방이었고, 해방된 민족만이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했다.

또 “안식일을 통해 그들은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예배했고, 여호와와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안식은 그들과 함께 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 날은 종들도 일하지 않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가축도 쉴 수 있는 날로, 소외됨 없이 공동체 모두를 살함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구별하신 거룩한 시간(창 2:3),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분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시간”이

라고 했다.

더불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안식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사역을 통해 새롭게 드러난다”며 “안식이란 결국 죄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피조물들이 새롭게 경험하는 순간이요, 이 세상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이 누리게 하는(요 10:10) 주님의 은혜”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가는 일에 쪼든 이들이 소비문화가 만들어내는 어떤 환상적인 장소로 도피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보다 창조적인 시간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으로 바뀌어야 하는 시간”이라며 “여가는 더 이상 육신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요일 2:16)을 위한 시간 일 수 없다. 우리는 여가를 통해 영과 육의 깨어진 균형을 다시 찾고, 나를 발견하며 또 나를 넘어 이웃으로, 온 세상으로 우리의 사야를 넓히는 창조적 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한 장소나, 돈을 지불하고 누려야 한다는 물질주의적 여가문화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고 자유할 수 있다면, 삶의 순간마다 주어지는 짧은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삶의 기쁨과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떤 것이든 좋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어도 좋다. 독서나 음악 감상, 영화, TV 등 대중문화를 통해서, 스포츠 활동이나, 취미 활동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임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힘쓰다면, 여가는 일(work)과 예배(worship)라는 삶의 리듬 속에서 우리는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무한경쟁의 이 세대에서 우리의 시간이 일과 돈을 위한 활동으로 채워지지 않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린 사랑과 봉사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다면,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성숙한 여가를 향유하는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사도바울의 권면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정 자유롭고도 책임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더 많아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발급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공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신선도 • 캠프신비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요한복음(50) '인생을 건 믿음의 고백'

본문: 요한복음 9:8-23
설교: 인천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



톨스토이(Tolstoy)의 참회록과 어거스틴(Augustine)의 참회록, 그리고 루소(Rousseau)의 참회록은 세계 3대 참회록으로 꼽힌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자신의 대표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마무리할 무렵 크고 작은 사건들을 겪고 삶의 회의를 빠져 자살까지 생각하며 절망하던 내적 고뇌 끝에 참회록을 썼다. 전쟁 중 수없이 살상하고,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사기, 절도, 폭력, 음행 등 온갖 죄를 다 저지르며 살아왔음을 적나라하게 고백했다.

하지만 "55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성인이 되고부터 30년 동안 쾌락주의자 또는 허무주의자로 인생을 살았다. 그러면서 많은 책도 썼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지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5년 전 나이 50이 되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할 수 있겠나? 그래서 예수 믿고 그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했는데 그 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며 "예수 믿는 것이 지혜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한 그의 참회록은 고백록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 되었다.

아우구스티누스 아우렐리우스, 성 어거스틴은 마니교에 심취한 이교 행위, 거짓말과 도둑질, 정욕과 간음 등으로 젊은 시절을 방탕하게 살다가 가장 위대한 성인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지만 인기와 존경심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때인 나이 43세에 '참회록'을 출간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했다. "명예와 돈과 결혼을 열망하며 욕망을 추구해 나갈 때 나는 아주 쓰디쓴 곤경을 당해야 했지만 주님의 자비는 그 곤경을 통해 크게 역사하셨어 내가 당신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다진 『사회계약론』과 '자연으로 돌아가자'며 자연주의 교육을 주장한 혁신적 교육소설 『에밀』 등 많은 저서로 지금까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준 루소는 바버리맨이자 성도작자였다. 그래서 멸시와 냉대, 정부와 교회로부터 탄압받고, 망명과 도피자로 떠돌며 보헤미안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만 "사람 하나를 받기껏 세상 사람들에게 전시하려 한다. 그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인데 선악을 가리지 않고 감추거나 과장 없이 모두 말하고 싶다"는 고백으로 시작하는 참회록을 썼다. 다른 사람에게 도둑 누명을 덮어 씌운 것, 오래도록 뒷바라지해 준 사람을 배신한 것, 다섯 자녀를 고아원에 보낸 것을 솔직하게 고백한 것이다.

루소는 프랑스의 사회계약론자이자 직접민주주의자, 공화주의자, 계몽주의 철학자로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고, 어거스틴은 서방교회의 아버지가 바울 이후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기독교계의 거장이다. 그리고 톨스토이는 예수 영접한 후 엄청난 유산을 노예들에게 나누주고 그들을 해방시킨, 평생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다. 그리고 『전쟁과 평화』, 『부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등 복음적인 문학 작품들을 많이 썼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누구나 '생명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본문의 주인공 공도 그랬다.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름 모를 사람, 실로암에서 눈을 떴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다. 그런데 축하하는커녕 사람들이 의심하고 출교(excommunication)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은혜의 사건을 붙잡고 결국 온전한 믿음을 이르게 된다.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믿음의 투쟁과 점점 더 발전하는 믿음의 고백이 멋지다. 그 고백은 진리에 인생을 건 믿음의 고백이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보게 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기적 자체에 대해 다루는 것은 6절과 7절 단 두 구절뿐이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맹인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내용도 없다. 전체 41절 중 39절은 기적이 일어난 사건 전후의 갈등을 다루었다. 요한복음의 패턴은 어떤 사건이나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놀라고 오해하고 예수님이 해명하는 설교를 하면서 정체를 드러내시는 것이지만 9장의 주인공은 고군분투(孤軍奮鬪), 혼자 전쟁을 치른다. 어느 날 갑자기 닥친 은혜로 눈을 떴다면 잔치해야 마땅한데 오히려 예기치 못한 전쟁을 치러야 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뜬 기적,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절인이었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앞서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든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8-9절).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멸하던 자기가 너무 당당한 모습으로 확 바뀐 다른 사람이 된 것이 싫었을까? 마치 더 이상 조롱할 수 없는 사람이 되자 그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다. 완고한 시선은 변화된 당사자를 기분 나쁘게 하는 법,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좋지에 걸잡을 수 없는 논란거리로 휘말리고 말았다.

그때 "어떻게 네 눈이 떠졌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라는 맹인이었던 이 사람의 대답은 멋진 믿음의 고백이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11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보게 했다는 것이다. 멋진 간증 아닌가?

5장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38년 된 병자가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고 대답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38년된 병자였던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5:13) 9장의 주인공은 몇 번을 물어도



흔들리지 않는다.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라는 질문이 9장에 무려 네 번이나 나온다.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10절),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15절),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19절),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26절). 처음에는 이웃 사람들이 묻고,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물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답을 듣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그의 부모에게 다시 묻고 그 아들에게 또 묻는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How)에만 관심이 있었는지 '누구'(Who)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만 그렇까? 일반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 사람들은 기적을 보면 어떻게(How)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누가(Who) 고쳐주었는지를 몰아야 했다.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고백을 보라. '어떻게'보다 먼저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한다. 그는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기를 고쳐준 분을 알고 있다. 예수님이라는 인격에 관심을 가진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의 첫 단계였다. 그렇다. 무엇보다 관심이 중요하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보게 되는 역사, 보지 못하던 드문 일이라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에게로 데리고 간다(13절). 바리새파에게 고백했다는 말이다. 바리새인들은 검사처럼 이 사람에게 여러 질문을 했다. 먼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고 물었다. 그때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더도 덜도 없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보게 되었다"(15절). 그러자 그들 중에 쟁론이 벌어졌다.

그 모습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놀라운 사건에는 관심이 없다. 날 때부터 맹인, 세상에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흔한 일인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하지 않나? 죽었던 생명이나 다름없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을 축하하고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 그저 걸다리에 불과한 안식일 조항을 들먹인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진흙을 이긴 것은 일에 해당한다는 것, 또 안식일에 치료한 것도 의료 행위, 일에 해당하기에 안식일 위반이라는 것이다.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바리새인들, 안식일 위반이라는 꼬투리를 잡아 걸러

들었다고 호들갑을 떠다. 예수도 죄인이고 너도 그 세력에 가담했으니 죄인이라 규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고정관념, 결국 예수님을 잡아넣을 꼬투리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본심을 드러낸 셈이다. 과연 예수님과 같은 편이면 출교시키겠다고 결의했는지(22절) 사람답다.

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으로 여기고 다시 물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17절). 38년 된 병자의 부인(否認)이 예수님께 치명적이었는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도 부인하면 그를 눈 뜨게 한 메시아다운 사건은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완전히 매장시킬 수 있다. 그런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상외로 안식일을 범해서 죄인 취급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증거한다(17절). 유대인들의 기대를 묵살하는, 인생을 건 믿음의 고백이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고 말하던 단계가 아니다. 심문을 받다보니 믿음이 더 강해진 걸까? 예수님을 선지자라 한다. 단순한 대답이 아니다. 진리에 목을 걸겠다는 자세, 발전된 신앙고백을 한 것이다.

◆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고백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첫 번째 계획이 무산되자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부모를 불러 세 가지 질문을 한다. 그 질문은 "① 아들 맞나? ② 정말 맹인이었나? ③ 아들이 어떻게 나왔으며 누가 낫게 했나?"였다. 그런데 첫 질문과 둘째 질문 중 하나라도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 수 있는데 그 부모는 둘 다 사실이라 한다.

그러나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발뺌을 한다. 출교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출교라는 단어는 '아포스나그로스'(aposunagogos), 유대교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조치다. 가족은 물론 친척과도 갈라서야 한다. 상업이나 전교 활동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모는 심지어 자기 아들이 눈을 뜬 것도 별로 기쁘지 않은 듯하다. 아들이 막무가내로 예수님을 증거하자 아예 아들을 버린 것 같다.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오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라"(21절). 아들에게 떠넘긴다. 참 못났다. 너무 비겁하다.

본문 가운데 아들이 눈뜬 것에 대한 부모의 기쁨이 전혀 없다.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다. 그저 눈치 보기 바랄 뿐, 어저면 아들이 눈을 뜨면 서 나를 벌어진 구걸의 수입이 끊길지도 모른다

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이유를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 같았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22절). 이게 바로 노예근성이다. 부모는 아들이 장성했다고 한다. 노총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아무리 출교가 무서워도 부모 아닌가? 물론 자기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를 생각했을 수 있다. 출교가 그만큼 엄청난 일이었다는 뜻이다.

유대 사회는 회당 중심 사회이자 대가족 중심 사회, 핵가족 중심인 우리와는 다르다. 예루살렘에 만도 122개 회당이 있었고, 개인의 삶은 자기가 속한 회당을 중심으로 펼쳐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출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철저히 고립당하는 것, 치명적인 불명예는 물론 먹고 살길이 막막해지는 것, 생존권 박탈이나 다름없다. 팔레스타인 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세계에까지 고립됨으로 사실상 삶의 터전을 완전히 상실하는 무서운 조치, 가족 중 하나만 출교해도 온 가족의 살길이 사실상 막막해지는 초강력 조치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난리를 쳤던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도 맹인이었던 이 사람 좀 보라.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또 논란을 빚는다면 차라리 다시 눈을 감고 맹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할 만도 한 데 아니다. 고쳐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사람 눈을 뜨게 해서 출교라는 이 난리를 겪게 했다고 원망하지도 않는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

철학과의 한 노 교수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한 학생이 댓글을 단다. "교수님, 제 고생 좀 사 가십시오. 제가 쓴 값에 드릴게요" 고생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나? 고생 싫다는 거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잡간만 낫지만 이제는 고생하거나 죽어도 좋다는 태도다. 예수님 때문에 구걸하며 살던 이 사람의 인생의 대전환이 시작된다. 예수 만난 인생은 외로운 밤 중에도 노래하는 인생이라고, 눈을 부릅뜨고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부모로부터 독립하기로 결심이라도 한 것 같다. 아제는 경제적, 사상적으로, 주체적으로 서야 할 나이,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질 나이다. 지금까지는 부모에게 기댄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 산 순교자가 되었다. 그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비결이다(35절). 그제 비망 끝에 흔들림 없이 진리의 길을 뚜벅뚜벅 걷게 된 비결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아! 테스트형, 세상이 왜 이래요?'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러기만 하지 말고 예수님과 굳게 손잡아야 한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멋진 신앙고백으로 반전의 역사를 시작하며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한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의뢰: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베프로피렌 4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어깨결림), 타박상, 골절상, 염좌통(염좌),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상품 및 구입문의 : 080-082-1234 (수신자 부담)

정금 같은 믿음이란?

박진호 목사
엠펙스커버비즈한인교회



“여호와께서 또 음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찌니라 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욘 40:1-5)

절지에 엄청난 환난을 당한 음은 하나님께 그 이유라도 가르쳐 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네 영혼이 살기에 관해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를 더 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욘 10:2) 세 친구와의 논쟁도 서로 핑트가 어긋나기만 했고 젊은 엘리후까지 가담한 토론은 결론이 나질 않았습니다.

급기야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서 음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나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찌니라”(욘 38:2) 그리고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3절)를 필두로 41절까지 4장에 걸쳐 약 100개에 이르는 질문을 쉴 새 없이 쏟아놓았습니다.

음으로서 당장 첫 질문부터 도무지 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치를 알지만 설명을 못하거나, 혹은 그 답을 비웃게거나 유추해볼 수 있는 부류의 질문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성과 능력을 다 동원해도 아예 힌트조차 구할 수 없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선 질문을 다 마지막도 전에 질문조로 다그쳤습니다. 이제껏 당신에 대해 그렇게도 불평과 의심을 퍼붓더니 왜 꿀 먹은 벱어리가 되었느냐 어서 빨리 질문 하나라도 대답해보라는 것입니다. 음으로서선 다시는 하나님께 불평은 물론 의심도 하지 않겠다고 항복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음의 막막한 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짓궂어 보이까지 합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한탄하는 음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기는커녕 한 번도 깊이 생각지 못한 사안들에 대한 질문만 속사포처럼 퍼부으니 말입니다. 거기다 하나님은 스스로 “전능자(全能者)라고 소개하면서 나와 다투보겠다고 감히 담뱃데 그럼 어디 한번 해볼까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인간과 변론하면서 서로 견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질문들을 하신 그분의 의도 또한 답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능함을 자랑하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21세기

철학과학자들조차 대답 못할 질문을 구태여 사천 년 전 인물인 음에게 하신 당신의 의도에 대해 깊이 묵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너무나 당연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치가 무지 크고 힘이 엄청 센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겉으로만 봐도 싸움을 아주 잘 할 것 같아 감히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 실제로 태권도 4단, 합기도 5단, 유도 3단, 검도 4단, 등등 무술의 단만 합쳐도 20단이 넘고, 격투기와 권투사범 자격증은 물론 각 협회의 간부직 책까지 갖고 있음은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 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주눅이 들어 그 사람 앞에만 가도 자동적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말투와 태도가 공손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 받을수록 그분을 대하는 음의 생각과 태도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도무지 답할 수 없는 질문 하나하나가 바로 그분의 전지전능에 대한 구체적 증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 고개를 들기엔 눈도 마주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분께 바칠 것이라고는 오직 순종, 경배, 감사, 찬양, 의탁, 헌신뿐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음에게 던진 질문이야 거짓 백 개지만 그분이 피조세계와 인간을 통치하는 그 세밀한 과정들을 우리로서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숫자로 나타낼 수 없으며 무한대라는 개념도 그분의 오묘하고 위대한 섭리를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과학으로 우주의 비밀을 못 깨칠 것 하나 없다고 탐미는 인간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하늘에서 보시는 그분이 웃으실 것입니다. 아니 너무 측은해서 웃지도 않을 것입니다.

신자라면 하나님을 단순히 전능자라고만 인식 해선 안 됩니다. 불신자도 그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왜 어떻게 행하시는지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탐구해봐야 합니다. 그 결과 그분의 너무나 당연한 전능함을 알고 믿는 것보다, 자기는 그분의 이치를 단 한 개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너무나 미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임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과 그분 사이에는 절대로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온전히 겸비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바꿔 말해 그분은 당신의 뜻대로 못 이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 세상의 모든 존재는 오직 그분으로 인해 보존, 성장, 유지될 뿐 아니라 쇠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인생만사는 전적으로 그분에 의해 시작되고 끝납니다. 못 이루 실 것이 없다는 것을 또 다시 전능하다는 차원에 서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뜻하신 목적, 계획, 일정, 방식,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존재는 당신 외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뜻은 단 한 치의 부족, 오류, 모순, 상충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진술이라고 간주해선 안 됩니다. 음에게 고통을 허락한 가운데도 당신만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다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고통을 경감, 변경, 중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음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어서 빨리 구출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고 당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진술한 그대로입니다.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전 3:1) 음도 하나님의 질문을 직접 받기 전인데도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 이 진리를 어렵듯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욘 23:10)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를 정금같이 단련하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한 것까지는 알았지만, 정금이 되기 전에는 그 단련을 결코 멈추지 않으리라는 것까지는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에 음이 도달하게 된 정금 같은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음이 자기 믿음 수준에서 스스로 소원하고 알았던 자리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여 이끌고 가려 했던 목적지 말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일지라도 당신에 대한 불만과 의심은 물론, 고난을 빨리 끝내 달라는 간구와 그 고통의 원인이라도 알겠다는 요구마저 완전히 거둔 바로 본문의 상태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특별히 고난마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셨거나 허락하신 것이므로 그 고난을 멈추시는 시기와 방식도 당연히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임을 완전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요컨대 그도 전도서 기자처럼 범사에 하나님의 기한이 있음을 인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전 3:11)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되 그 시작과 끝을 인간으로 모르게 한 것은 오직 영원을 사모하게 하려는 뜻이라고 합니다. 영원의 차원이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입니다. 쉽게 말해 이 땅에선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의 시종(始終)을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주님의 품인 영원의 차원에 가야 모든 것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한편 도무지 이유도 모르겠고 시종조차 까마득한 고난을 이 땅에서도 영원의 차원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에서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차 강조하지만 고난에 대한 그분의 뜻과 계획과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자가 반드시 숙지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의 수고는 물론 이해 여부와 믿음의 세기와도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덧붙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



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전 3:12-14)

그렇다고 신자가 고난에서 구해달라거나, 또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 하겠다거나, 나아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르쳐달라고 간구해선 안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자녀이기에 무엇이든 아뢰고 간구할 수 있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절대로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려 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행하지 않으려 한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그분께 가장 앞서, 아니 유일하게 바칠 것은 그분을 향한 경외심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마음에 절대로 악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 같은 계교, 가식, 거짓, 왜곡, 타산 등도 하나 없으며 나를 조종하거나 강요할 의사도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그러하기에 신자 또한 정말로 온전한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갖고 잠잠히 그분의 완벽한 행하심을 바라보며 기다리면 됩니다. 고난이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 심정적으로 도무지 감사와 찬양이 수반되지 않는다 해도 최소한 자신의 평강과 그분에 대한 기대는 갖고 견뎌야 합니다.

유기는 어찌 보면 너무 심하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음의 고난의 원인을 끝내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께서 던진 질문의 해답도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의문 부호만 넘쳐나네요. 거기다 음도 본문과 마지막 42장에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항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무력시위 앞에 제대로 된 응전한 한 번 못합니다. 그전까지 친구들과 엘리후 앞에서 기세등등하게 자기 의로움을 자랑했던 자가 말입니다.

“주께서 무소불능(無所不能)하시옵며 무슨 경

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냐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욘 42:2-6)

음의 마지막 이 고백은 결코 심거운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강요된 무조건 항복 선언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동안 자기가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알아야겠다고 탐미는 것이나, 고통이 너무 심하니 차라리 죽여 달라고 했던 것이나, 나는 의로이니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한 것 등 모두가 너무나 어리석은 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 가지 질문들을 받고 보니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주가 못하시는 일이 하나도 없지만 행하시는 일 전부가 당신께서 경영한 그대로이므로 선하지 않는 것이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한 내용도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 죄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하나님께 맞섰던 것에 대한 철저한 뉘우침입니다. 또 기어이 고난의 원인을 알고야말겠다고 하나님께 탐미는 것을 완전히 접은 것입니다. 음은 자신의 지난 믿음의 체형에서 나온 고백들이라도 자기 자랑이나 의로움이 조금이라도 묻어져 나왔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가 되지 못함을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신자들이 음의 결론이 너무 허무하게 끝나는 것 같으니 본문보다는 “여호와께서 음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12절을 결론으로 삼으려 합니다. 도덕적, 종교적 회개를 철저히 하니 하나님께 복을 더 많이 주시더라는 너무나 단순한 해석과 함께 말입니다. 아닙니다. 모년에 복을 주신 것조차도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일정대로 이뤄진 것일 뿐입니다. 만약 음의 마지막이 그간의 중병으로 인해 하나님 품 안에서 눈 감았다고 적혔다 해도, 음은 이제 그마저 감사하는 신앙의 수준이 되었다는 것이 숨겨진 진짜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말년에 이르러서야 갖게 되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바로 그 수준입니다.

음은 하나님께 선하지 않은 것, 완벽하지 않은 것 단 하나도 없기에 예수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백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이 정금같이 변화된 확실한 증표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도 무엇이든 못 이룰 것이 없기에 내 소원을 열심히 간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선하시기에 신자로서만 마땅히 견뎌야 드릴 것이 없음을 알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오히려 기뻐하며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행복을 물로 더 놓는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교회 음악이란



유양선 교수
센트럴신학대학원 교회교육
겸임교수

센트럴 신학단상

교회의 "사찰" 관사님이셨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인해 필자는 "교회"라는 환경이 낯설지 않게 자랐다. 부모님은 모두 회사에서 늦게 귀가 하셨기에, 초등학교 때는 항상 방과 후에 할머니가 일 하고 계시는 교회로 향해서 할머니의 퇴근까지 기다리며 할머니의 일을 도왔다. 필자는 할머니께서 대성전을 청소하시는 날을 무척 기다렸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웬만한 피아노 학원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랜드 피아노"를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항상 필자에게 마른 수건을 주시며 피아노를 닦도록 하셨고, 건반을 닦는 것은 "합법적인" 이유가 되어 필자를 오롯이 그랜드 피아노에서 마음껏 피아노를 쳐 볼 수 있도록 했다. 예배 시간에 피아노와 오르간을 치셨던 선생님이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필자도 그 분들처럼 예배 시간에 피아노와 오르간을 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이런 꿈은 비전이 되어 교회음악가가 되었다.

그 비전으로 필자는 한국에서 교회음악을 전공 후, 미국에서 오르간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후, 현재는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Dallas에서 오르간 반주자와 음악사역 부대태터로 일하고 있다. 석, 박사 과정에서 약 19년간 영어권 회중의 천주교, 성공회, 연합감리교회, 장로교 등 다양한 교단과 회중에서 교회음악가로써 일 하고 경험하게 되었다. 이 칼럼을 통해 먼저 교회 음악 개념을 간단히 나누고, 다음 기회를 통해 이러한 교회 음악 개념들이 필자가 경험한 교회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길 소망한다.

한다. 일반적으로, 음악학에서 음악은 "음(音)을 소재로 하여 높낮이·장단·강약 등의 특성을 살린 예술" "시간의 흐름 속에 표현되는 시간 예술"로 정의하고, 그것은 크게 성악/기악으로 크게 분류된다 ("음악 통론", 김성태 저)

그렇다면 교회 음악은 무엇인가? "교회 음악 개론"을 집필하신 인영만 교수에 따르면, 교회음악은 "세속적인 음악(일반음악)의 대응되는 말,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음악, 예배시에 사용되는 음악, 교회의 사역과 사명을 위해 사용되는 음악, 그리고 무형의 교회 (Ecclesia)의 사명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음악(일체)을 포괄하는 음악"이라고 정의하지만, 결론적으로, 교회음악이란 절대적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고 한다. 하지만 교회음악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고 기술한다. 그것은 바로 장엄하고 성스러운 감정을 노래로 드높일 수 있는 것, 기독교가 목표한 바를 성취시킬 수 있는 것, 기독교 개념을 담고 있는 것, 기독교 의식적

교회 음악의 목적, 하나님 찬양하고 신자 영적 성장 도와 교회 밖으로는 복음 전파하는 것 교회 및 사회에 선한 영향력 끼쳐야

인 것, 기독교를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대표될 수 있다.

교회 음악의 종류와 그에 따른 역할은 다양하다. 그 중 가장 중요한 목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예배"를 위한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위해 예배시간에 연주하는 회중 찬송, 성가대 찬양, 전주, 후주, 봉헌송, 목도송, 화답송 등 모든 음악을 포괄한다. 예배 음악은 하나님께는 찬미의 수단이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같은 목적 아래 단결된 힘을 길

러주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교회음악은 기독교 교육의 기능을 담당한다. 기독교 교육의 근본 목표는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리와 지식을 가르치고, 복음으로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데에 있다. 교회학교 또는 성경학교를 통한 음악교육은 음악 기술 습득과 복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교회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음악 행위의 그 자체로서 의미가 있다.

교회음악은 전도나 선교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19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Dwight Moody: 1837-1899)는 음악가는 아니었지만, 시카고 주일학교를 통해 음악의 영향력을 알게 되었다. 그 이유로, 생키 (Ira D. Sankey, 1840-1908)에게 부흥 집회를 위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복음적 송가 작곡을 요청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이다. 1872년에 열린 집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 결과 부흥집회에서 사용된 노래들이 영국에서 "Sacred Songs and Solos" (1873)로 출간되며, 복음송가 (Spiritual Song)의 기원이 되었고, 현 시대의 크리스천도 부를 수 있는 교회음악의 큰 유산이 되었다.

교회 음악은 성도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고하고, 인도함과 동시에, 고난 속에서도 성도를 위로하고 극한 상황에서도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도 변화시킬 때도, 찬양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고, 옥문이 열리는 체험을 했다(행 16:23-26). 찬양은 바울과 실라에게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을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 간수까지도 구원을 얻게 하는 원동력이었던 것이다.

위에 열거한 교회음악의 다양한 역할 이외에도, 예술적 기능도 담당한다. 사순절과 부활절, 대림절, 성탄절 즈음이면, 많은 교회에서 "메시아"와 같은 "오라토리오", "칸타타", "레퀴엠"과 같은 예술적 음악들이 연주된다. 이것들은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독교 내용을 바탕으로 작곡된 음악으로, 가사를 통해 전도와 교육용 음악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회음악은 일반 음악과는 구별되어 그것만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두 음악의 가장 큰 구별점은 교회 음악은 음악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회 안으로는 신자의 영적 성장을 돕고, 교회 밖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성악곡에서는 가사를 통해 성경, 기독교 교리 또는 진리, 하나님 찬양, 영적 성장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기악곡에서는 악기와 곡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음악 지도자들과 크리스천들에 의해 교회음악이 가지는 순기능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교회 및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지 않는다.

社 說

교계-통일부 정례협의회에 거는 기대

통일부가 기독교계와 정례협의회 체제를 가동한 후 그 첫 회의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있었다. 이날 통일부 김영호 장관 등 통일부 실무자들과 예상 통합, 고신, 개혁신당 등 8명의 교단 총무(사무총장)들 간에 정부의 통일정책과 한국교회의 역할에 대한 진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통일부-기독교 정례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건 지난해 12월 13일이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할 목적으로 통일부가 기독교계와의 소통에 나선 건데 그 첫 회의가 출범 후 4개월이 지나서야 열리게 됐다는 점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통일부는 출범 당시 참석한 한국교회 주요 교단 총무들에게 협의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석방을 위한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을 전하며 개신교계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교단 총무들은 안보의 위협이 가중되고 분단이 고착화하는 현실에서 국민적 통일 의지의 약화를 우려하며 한국교회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또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일 등 통일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 일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가 개신교계와 정례적인 협의체를 가동하게 된 건 정부와 종교계 간의 소통에 주안점이 있다. 하지만 기독교뿐 아니라 불교, 천주교 등도 비슷한 정례모임을 갖는다는 점에서 기독교계에만 특별한 방침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다만 한국교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이까지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와 실천에 앞장서는 등 민간 차원의 통일 운동을 주도해온 것에 통일부가 주목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첫 협의 자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한국교회는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다"며 교계의 평화 통일 운동을 높이 평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의 통일 인식이 점점 낮아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통일을 위한 작은 실천들을 해나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통일을 위한 기도와 사역, 봉사, 헌신들이 하나하나 모여 통일을 위한 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 수장으로서 이번 정례협의회가 정부와 기독교계 간의 거리를 좁히고 자유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공감대는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올해는 김구가최초로 선교 사명들이 북한에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해"

라며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 문제를 언급했다. "정부가 자국민 보호라는 확고한 원칙과 책임감 아래, 억류된 분들의 건강과 생사 확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억류된 선교사들과 남북차-억류자-국군포로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정부가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해 온 교계로서는 정부의 이런 노력이 반가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의 노력 또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협의회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나온다면 좋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교회가 바라는 건 성급한 통일 낙관론이나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다. 역대 정부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한 물자를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 쏟아 부은 북한을 상대하는 데 있어 몽상적인 접근이아말로 통일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기독교계가 정부에 바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일관성 있는 대북-통일 정책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날뛴 정책이 바뀌면서 한국교회 등 민간 차원에서 추진했던 모든 노력들이 소모로 돌아가게 해선 안 될 것이다.

통일 해법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독일 교회다. 독일교회는 동서독 통일을 위해 요일과 시간을 정해 지속적으로 기도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일을 위한 화해 노력을 꾸준히 기울였다. 여기에 서독 정부의 일관된 평화 통일정책이 밑받침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신뢰하기 힘든 체제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할 대상은 북한 주민이지 김정은 3대 세습 독재정권이 아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이를 간과함으로써 통일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놓고 말았다.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북한 당국자가 아닌 북한 동포에 맞춰져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북한 동포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그들에게 줘야 지금의 고난을 견디며 통일의 날을 기다리지 않겠나 말이다.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일관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온 한국교회로서는 통일부와 의 협의회에 거는 기대가 있다. 따라서 모임 자체에 의미를 둔 형식적인 협의체로 그쳐선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교회가 각자의 위치에서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함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해 내는 생산적인 협의회가 되기를 바란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청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청소년, 코로나19 종식 후 “삶 만족도·긍정적 인식 증가했다”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 발표 코로나19 종식 후 삶의 변화 ‘긍정’ 평가

코로나19가 끝난 이후 가족 및 친구관계, 학교생활 등 전반적인 삶이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이번 조사는 전국 5000가구의 주 양육자 및 9-24세 청소년 742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가구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조사에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삶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가족관계, 친구관계, 학교생활, 전반적인 생활, 사회에 대한 신뢰,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 등 6개

항목 모두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응답비율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전반적인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한 비율은 29.6%로, 2020년 조사 대비 16.2%포인트(p)상승했다. ‘가족관계’는 10%p 증가한 32.1%, ‘친구관계’는 16.1%p 증가한 31.5%, ‘학교생활’은 15.4%p 증가한 26.8%,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전망은 13.3%p 증가한 20%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답했다.

잘 산다고 느끼는 ‘주관적 웰빙 수준’도 10점 만점에 6.97점으로, 2020년 조사 대비 0.2점 상승했다.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대인관계 역량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회복탄력성 수준이 높을수록 정신

적으로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복탄력성’이란 역경과 시련 등 특히 심라정서 문제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말한다.

청소년의 대인관계 역량의 수준은 4점 만점에 3.09점으로 2020년 조사 결과와 같았다. ‘대인관계 역량 수준’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유지하고,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며 협동을 통해 집단의 성과에 기여하는 능력을 말한다.

대인관계 역량이 높은 청소년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주관적 웰빙과 일상생활 만족도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대인관계역량 수준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관심도는 높고, 방입수준은 낮게 나타났다.

어떤 선택이나 결정 시 자신의 이성과 판단에 의지하는 정도를 말하는 ‘자기의 존지향성’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청소년의 53.0%가 ‘나 자신의 이성과 판단

에 가장 의지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29.0%가 ‘부모·조부모 의견’에 가장 의지한다고 답했다.

부모와의 관계 및 지원 기대 인식에 대한 조사도 실시됐다.

이에 따르면 부모와 주 4-6회 대화하고 활동한다는 청소년의 비율은 2020년 대비 증가했다. 아버지와는 1시간 미만(29.6%), 30분 미만(28.8%) 대화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어머니와는 2시간 이상 대화하는 비율(33.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모 지원 기대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20년 대비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시기에 따라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증가했다.

부모가 ‘결혼할 때까지 경제적 비용을 전혀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률은 40.1%로 2020년보다 7.9%p 증가했고,

‘어느 정도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55.4%로 7.0%p 감소했다.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조사(39.1%) 대비 소폭 낮아진 38.5%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다’는 응답 비율은 2020년도 조사(60.3%)와 유사한 60.1%로 나타났다.

가장 염려하는 사회문제로는 범죄와 폭력이 27.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지구의 미래와 환경(22.7%), 경제 불황 및 위기(16.7%) 순이었다.

청소년 활동 참여율이 가장 높은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59.2%)이었으며, 가장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활동도 문화·예술 관련 활동(43.6%)이었다.

청소년의 직업선택 기준은 자신의 능력(43.0%), 적성(17.1%), 장애성(11.1%)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9.5%

로 지난 2020년 조사(39.9%) 대비 9.6%p 증가했다.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은 서비스직(51.2%)이며, 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청소년은 83.6%로 2020년 조사(89.0%) 대비 5.4%p 감소했다. 감소된 비율만큼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했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공공립 청소년 시설 등을 통해 디지털·문화·예술 등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창의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청소년의 삶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보다 더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꾸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서울시, 중증장애인 대상 ‘이룸통장’ 모집… 매월 15만원 추가 적립

만 15~39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2~24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

서울시가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청년 자립에 필요한 씨앗자금 마련을 돕는 ‘이룸통장’ 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참가자가 일정 금액(10·15·20만원)을 선택해 저축하면 선택 금액과 상관없이 서울시가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26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시는 올해 이룸통장 참가자 7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이룸통장은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3594명과 약정을 체결했고, 총 2115명이 3년 만기 저축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청년들이 모은 저축액은 총 227억 5800만 원에 달한다.

이룸통장으로 모은 자금은 중증장애 청년들의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또는 장기자금 마련을 위한 미

래 자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또 단순 지원이 아닌 참여자 대상 사례관리와 금융교육 등을 통해 장기적인 저축 습관을 길러줘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일부터 24일까지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공고일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 서식과 필요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필요서류 등은 서울시 고사·공고란, 서울시복지재단 소식단, 25개 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발자는 면접 없이 제출 서류만으로 심사·선정하며, 8월 말에 발표한다. 선발자들은 9월 초 약정 및 저축을 시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주소지 동주민센터 및 자치구로 문의하면 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일하기 힘든 청년 중증장애인의 자립자금 형성을 위해 시행하는 맞춤형 지원제도인 이룸통장 사업을 6년 동안 지속해 왔다. 청년 중증장애인들이 이룸통장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다운 기자

“가정의 달, 서울 곳곳 축제로 가득”

공원·서울광장 등에서 가족 축제 개최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울 곳곳에서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와 행사가 열린다.

서울시에 따르면 월드컵공원 유아 숲체험원에서는 어린이들이 직접 만든 동행가든 뿔꽃이정원에서 꽃으로 명화만들기, 곤충과 꽃 생태체험 등으로 구성된 ‘나는 꽃이’ 진행된다. 정원을 상상하며 그린 어린이 그림 30여점도 전시된다.

오는 3일 저녁에는 서울을 대표하는 야간 문화예술프로그램 ‘서울 문화의 밤-어린이날 특별행사’가 개최된다. 서울역사박물관·한성백제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서울우리소리박물관 등 박물관 4곳,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도서관, 남산골한옥마을·윤현궁·세종충무공이야기 등 9곳에서 진행된다.

연휴 기간인 4-6일에는 노들섬에서 국내 유일 서커스전문축제 ‘서울서커스 페스티벌’을 만나 볼 수 있다. 책임은 서울광장은 연휴기간 거대한 동화마을로 변신한다. 아이들이 직접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보는 의상 체험존을 비롯해 마임, 아카펠라, 창작동화연극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청소년을 위한 행사도 있다. 5월 어린이대공원 포시즌가든에서는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와 함께하는 ‘미지, 세계와의 만남, 글로벌 부부마블 in 어린이대공원’이 열린다. 전 세계 20개국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로 서아프리카 전통음악공연, 브라질 카포에라 공연, 한국 사지탈 공연으로 구성된 음악공연도 펼친다.

4일 문화비축기지 야외무대에서는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 ‘길동무 북두칠성 그림자극’이 상영된다. 이야기꾼과 놀이꾼이 객석과 무대를 넘나드는 그림자극으로 공연 시작전 30분간은 어린이들이 직접 그림자극을 체험할 수도 있다.

서울숲에서는 18일까지 시민들이 공원 속 도심 문화여행을 즐길 수 있는 ‘2024 봄봄 서울숲 축제’를 개최한다.

프로그램 세부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문화포털, 서울의 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예약 프로그램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우리 기자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2배 이상 늘었다… 8월 지급

자녀장려금 확대 대상 가구·금액 크게 증가 이달말까지 신청… 소득·재산 요건 심사 후 지급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

서 100만원으로 인상된 것에 기인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오늘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요건을 심사해 8월에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 대비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이중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1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사무서 직원은 금융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우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최신간 NEW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도 교회 없이 세운 군포계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교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아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머니회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정으로 밟아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사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원송가계발전회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M.),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명인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 1장 칼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행하는 성경여행서!



성경의 모든 장을 칼럼으로 저술했습니다. 성경 내용이 이해되고 계속 읽혀집니다. 정통 신학과 교리에 충실하고 적용이 탁월합니다. 경건을 갈망하는 크리스천이 기다려 온 책입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에게 권요합니다. 말씀사역자의 평생 자료로 사용됩니다.

저자 | 김명제 목사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예담교회
발행 | 하우출판사 (온오프라인 판매) (각권 484면, 권당 24,000원)

온라인 판매처 | 알라딘, yes24, 영풍문고, YES24, YES24, YES24, YES24, YES24

제1권 창세기-뫼기, 제2권 사무엘상-욥기, 제3권 시편-이사야, 제4권 이사야-마태복음, 제5권 마가복음-요한계시록

NAVER 성경 1장 칼럼 | 성경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책을 펼쳐라 - 교보문고-

다문화복음방송

Multicultural Gospel Broadcasting Company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사 60:1)

대표 김덕검 목사

다문화복음방송을 시청하시려면
1. 홈페이지(www.mgbc.tv)에 접속
2. 메인 화면의 국가나 국기를 선택
3.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 듣기

*이미 방송된 내용이나 현재 방송 중인 방송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
플레이스트에서 다문화복음방송 앱 다운로드 하시면 13개국어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서울 강서구 염창동 292-1 동아상가 402호
대표번호: 010-8228-5213

하늘문을 여는 기도대성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 1:5)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자!

신현영광교회 본당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담임목사 박만규
T 010-3739-4512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향의 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1.청정지역 입지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 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소망의동산실로원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비산동 교회소속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소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십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교회건축포럼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우리은행 _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현대인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을 노하루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할스스틸과 융합기술
· 연무대학교 7000여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투어 방송 사례(수영로교회/ 호산나교회)

인테리어 에스프리글로벌 최종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음향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CM (주)라미건축사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례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우선이다
· 교역자가 알 일, 건축위원회가 알 일
· 설계자의 업무, 사공사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인류혁명 시대’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은?

안중배 국제미래학회 회장,
「인류혁명 문명대변혁」 출간

국내 대표 미래학자인 안중배 국제미래학회 회장이 20년간의 미래학 연구와 3년간의 집필을 통해 책 「인류혁명 문명대변혁」을 출간했다.

이 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새롭게 시작되는 문명사적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방안 및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의 중요성을 담고 있다.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로 인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에 대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미래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저자인 안 회장은 “인공지능과 기후위기로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인 인류혁명 문명대변혁이 시작되어 인류는 현재 양극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 도달해 있다”며 “한쪽 길은 인공지능이 선택되어 인류가 주체가 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 인류와 지구가 지속발전 가능해지는 방향이고, 다른 쪽 길은 인공지능이 오용·악용되어 인공지능이 주체가 되고 인류와 지구가 종말로 향해 가는 방향”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인류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한다”며 “문

화혁명과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소명을 받은 교회와 기독교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안 회장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인류의 삶과 가치와 경제, 과학기술, 종교 생활은 이전과 확연하게 바뀌었고 기후위기 심화와 챗GPT로 촉발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를 새로운 문명으로 들어가게 내몰았다”고 했다.

이어 “인류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챗GPT가 촉발한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인류 문명 패러다임의 변화였던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혁명, 4차산업혁명을 넘어 새로운 문명대변혁 시대로 접어 들고 있다”며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핵심 동력이었던 도구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효율화는 인공지능에 의해 극대화되지만 잘못되면 인류가 퇴출되고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게 된다”고 했다.

저자는 “이제 인류가 공영하고 지구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 인간의 역할과 가치가 혁신되는 ‘인류혁명’이라는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있다”고 제시한다.

안 회장은 이 책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인공지능을 선용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해 인간다움이 유지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며 인간의 역할이 확장되어 항상 인간이 주체가 되고 인성과 영성이 강화되는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시대를 이해하고 잘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와 기독교가 본질을 회복해 영성과 사랑(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넘치게 될 때 ‘인류혁명’ 미래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고 다시 부흥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은 ‘인류혁명’ 시대에 자본주의 경제 체제 및 부의 미래 변화에 대해 예측하며 사례와 함께 담고 있다. 그리고 ‘인류혁명’ 시대에 부각될 10대 주요 과학기술과 10대 산업 비즈니스, 또한 정치 및 종교 생활을 포함한 라이프의 변화 등을 전망한다.

저자는 “본서가 인공지능과 기후위기가 몰고 오는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시대를 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 인류와 지구의 지속가능과 인류공영 및 인류의 행복과 지구의 지속가능 미래를 지향하도록 ‘인류혁명’ 시대를 대응하는 인류의 노력에 도화선이 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한국교회와 기독교인이 문화혁명과 지상명령을 수행한다는 소명감으로 바른 방향으로 ‘인류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시대적 소명감을 갖고 새로운 문명대변혁인 인류혁명 시대를 올바른 방향으로 선도하는 리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인류 공영과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본서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출간 소감을 전했다.

김진영 기자



시간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배우 차인표의 아내이자 방송인 배우의 길을 걷고 있는 신애라 씨가 자신의 간증을 담은 첫 번째 에세이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는 그녀의 부드럽고 잔잔하지만 강한 경탄,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라는 깨달음으로 진솔한 삶과 신앙, 그녀의 삶에 남기신 하나님의 흔적을 기록했다.

저자는 “어떤 모습에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조

차도 실망스러운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런 조건 없고, 변함없는 그 사랑을 느끼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사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심지어 내가 계획하지 않았거나,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내가 잘못을 회개해야 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그 일이 생긴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



는 것이다”라고 했다.

또 “나를 돌아본다는 건, 삶의 흔적들을 반추하며 ‘왜’라는 질문과 끝없이 대면하는 과정을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연애인이 되게 하시고 이 날까지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셨을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씨앗 하나도 땅에 떨어져 썩는 법이 없다. 다 제때 발아하여 쫓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주님이 가리키는 곳에 순종의 기쁨으로 나아갔던 내 걸음걸음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꽃피우는 길 볼 때마다 감격스럽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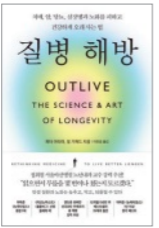
최승연 기자

치매·암·당뇨병·심장병 늦출수 있다?... ‘질병 해방’

“치매, 암, 당뇨병, 심장병 등 만성 질환과 노화는 늦추고, 막고, 심지어 되돌릴 수 있고, 10년에서 수십 년 더 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단, 그러자면 우리의 마인드셋과 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만 한다.”

장수 의학 권위자인 피터 아티아 박사의 책 ‘질병 해방’은 우리가 인생이란 배의 승객이 아니라 선장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수동적으로 진단 후 병원에 치료를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사전에 병의 싹을 자르는 일에 나서는 것. 이것이 만성 질환 시대를 사는 우리의 올바른 자세라고 주장한다.

그는 스탠퍼드 의대를 졸업하고 존스홉킨스병원에서 ‘올해의 레지던트’로 선정되는 등 앞날이 창창한 전공의였지만 한 때 의료계를 떠나 컨설팅 회사에 취직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왜? 현대 의학의 접근법과 체제에 절망했기 때문이다!”



현대 의학(의학 2.0)은 부상, 사고, 감염병 등 급성 질환에는 뛰어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런데 오늘날 주요 사망 원인은 노화와 노화에 따른 치매, 암, 심장병,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다. 그동안 주류 의학은 이 만성 질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과 전염을 선포하는 등 엄청난 돈과 인력을 쏟아부어 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미미하기 그지없어 그저 병들고 쇠약한 채로 목숨만 연명하는 기간을 좀 더 연장하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

아티아 박사는 의학 2.0의 가장 큰 문제점이 병 진단을 내린 뒤 사후 대처하는 접근법 자체에 있다고 지적한다. 노화의 만성 질환은 갑자기 걸리거나 안 걸리는 이분법적 질병이 아니다. 만성 질환은 아주 오래전부터 징후가 시작되어 보이지 않게 누적되다가 병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병 진단이 내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최대한 일찍부터 예방과 대처에 나서는 사전 대응 의학(의학 3.0)으로 패

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오늘날 만연한 만성 질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아티아 박사는 강조한다.

“종합하자면 나는 백세인의 비밀이 한 단어로 요약된다고 본다. 바로 ‘회복력’이다. 백세인은 수십 년 동안 흡연을 하면서도 암과 심혈관 질환에 저항하고 그런 병들을 피할 수 있다. 그들은 안 좋은 식사 습관을 지니고도 이상적인 대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포레들이 굴복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인지와 신체 노화에 저항한다.”(137-138쪽)

만성 질환은 중년이 아니라 20-30대, 심지어 10대 때부터 시작된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표준 지침을 버리고 개인 맞춤형 정밀 의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독특하며 동일한 문제와 특성을 지닌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표와 전략 아래 아티아 박사는 과학적으로 엄밀히 검증된 운동, 영양(식단), 수면, 정서 건강을 최적화하는 전술과 도구, 기법을 낱알이 알려준다.

이수지 기자

5월, 작가들의 말말말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러 있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곧 “자기가 약하다고 느낄 때 곧 깨닫는다”고 하는 깊은 역설적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이 약하다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게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됴므로 강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느낄 때는 자신의 능력밖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비극은 약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위해서 무엇을 이루었다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비워야 되고 약한 그릇이 되어야 은혜로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강요섭 ‘약한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다음 세대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의 왕따, 학교 폭력, 성 문제, 비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인해 다음 세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힘들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세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안아 줄 1차 안전지대가 어디일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계획하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인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이지요. 가정은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삶으로 전할 줄 부모 세대가 세워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소지희 ‘말씀에 에스 하는 자녀 양육’



여러분이 놀랄만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리더십을 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추구했던 유일한 것은 주님과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핵심요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대단한 것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들 무시하고 넘기다가 좋은 리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입니다. 저의 삶에서 역사했던 모든 것들은 전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란 그분과 사귀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 결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저를 돋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을 따랐을 뿐인데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리더십이란 그분을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주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말입니다.

앤드루 워맥 ‘리더십의 10가지 핵심요소’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진적으로 받아들이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천내산교회)

매일묵상 그리스도의 사람

〈복 있는 사람〉의 본문이 로마서 13:8-14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 어구가 제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14절)”

이 어구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3년간 유대 땅에서 공사역을 하셨을 때 어떤 옷을 입고 다니셨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아론 이후로 세습된 대제사장들이나 예수님 당시의 랍비(율법 선생)들은 평민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신들의 특별한 신분을 자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 평민들로부터 랍비라고 불리셨을 뿐 아니라 히브리사 기자는 예수님을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대제사장이셨으며 선생 중의 선생이셨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이나 랍비의 옷을 입지 않으시고 평민의 옷을 입고 다니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나 랍비가 입었던 특별한 옷을 입지는 않으셨지만, 성품과 행실을 통해 자신이 온전한 대제사장이며 참 선생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군인이 군복을 입고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학생이 교복을 입으면 일단 단정해 집니다. 그렇게 제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경찰답게, 학생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뜻은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을 본받아 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행실을 로마서 본문에 서는 두 가지로 요약하여 증언하는데 사랑(8-10절)과 거룩(11-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사랑의 삶,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랑의 삶, 거룩한 삶을 살기란 정말 힘듭니다. 그러

하기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시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도는 사랑의 삶, 거룩한

한 삶을 넉넉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먼저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답게 사랑의 삶,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성령님의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오늘 하루 함께 지낼 아내에게, 내일 주일에 만나게 될 교우들에게 제가 하는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실이 드러나도록 매사에 먼저 예수님을 떠올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밭교회 제공

바이블지식IN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복음서들(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는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예: 마태복음 8:22, 9:9, 마가복음 2:14, 누가복음 5:27, 요한복음 1:43).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당시의 제자가 될 열두 명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10:3-4). 하지만 다른 때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이 주실 것을 원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요한복음 3:16, 마가복음 8:34).

마태복음 10:34-39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요한복음 3:16)와 같은 말씀 이후에 예수님께서 “검”을 가지고 오셨고,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대립하게 된다는 말씀은 다소 거슬리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결코 진리를 누그러뜨리지 않으셨고, 진리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선택들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팔 복을 가르치시다가 (마태복음 5:3-11) 장차 자기 십자가를 가르치시자,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습니다(요한복음 6:66).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붙잡히셨던 그 밤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어렵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마태복음 26:56, 마가복음 14:50). 그날 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체포와 처형도 감수해야 하는 것임을 의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걸기보다, 예수님을 알았다는 것조차도 세 번이나 부인했습니다(마태복음 26:69-75).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나 무언가를 따릅니다. 친구, 인기 문화, 가족, 이기적인 욕망, 아니면 하나님을 따릅니다. 우리는

한 번에 오직 한 가지만 따를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6:24).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출애굽기 20:3, 신명기 5:7, 마가복음 12:30).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그 무엇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9:23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쪽 제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아무도 자기 의지력으로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의 의지력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 했던 자들의 좋은 예시입니다. 바리새인들 스스로의 노력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진 전체적인 목적에 대한 오만과 애곡을 낳았을 뿐입니다(누가복음 11:39, 마태복음 23:24).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비밀을 알려주셨지만, 당시에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요한복음 6:63)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65절)”라

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님의 기적들을 배우고, 관찰하고, 그것에 참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보혜사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아버지께 올라가면, 제자들에게 “보혜사” - 성령(요한복음 14:26, 15:26)을 보내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실 수 있도록 당신이 떠나는 것이 제자들 위해 좋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16:7). 성령은 모든 믿는 자의 마음에 내주하십니다(갈라디아서 2:20, 로마서 8:16, 히브리서 13:5, 마태복음 28:20).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랐던 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실 때까지”(누가복음 24:49, 사도행전 1:4) 당신을 증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처음으로 임했을 때, 믿는 자들은 갑자기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죽을 때까지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사도행전 21:4, 4:31, 7:59-60).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Romans 5:8 NIV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 demonstrate: 확실히 보여 주다
- in this: 이것으로
- while: ~에 대해 불구하고
- sinner: 죄인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폭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침향 16%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향의 진화 정성, 광동 쌍회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론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강지윤 칼럼 **독이 되는 말, 약이 되는 말**



강지윤 박사

자녀와의 대화에서 I Message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나' 전달법(I Message)은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 어떤 느낌이 들게 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자녀에게 솔직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느낌을 사실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 전달법은 나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이것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부모가 특히 유의하여 사용하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 전달법은 자녀에게 부모의 입장과 감정을 전달하여 상호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개방적이고 솔직한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

모의 느낌을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되며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대화법을 배우지 못한 어른 세대들은 자꾸만 아름답고 건강한 대화법을 배우야 합니다. '나' 전달법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린이가 자꾸 짜증을 부리니까 엄마 마음이 자꾸 불안해지네" "민지가 말도 없이 늦게 오니까 엄마가 너무 화가 났어" "진식이야 숙제를 안하고 놀기만 해서 엄마 마음이 좋지 않아" 부모세대가 자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방식은 You Message입니다. 이것은 너를 주어로 하여 상대방의 행동을 표현하는 대화 방식입니다.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상호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일방적인 강요나 공격, 비난당하는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자녀에게 반감이나 저항감을 불러일으키고 모욕감을 느끼게 합니다. 부모의 비난과 질책과 평가와 도덕적 판단과 남과 비교하는 말들을 반복해서 들으면 자녀는 화가 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You Message가 반복될수록 의기소침해지거나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자기 자신이 매우 하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것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부모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런 대화방식을 통해 무수한 상처를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의 예를 너 전달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 왜 이렇게 못난이같이 짜증을 부리니?" "왜 이제 기어올라와? 답에 또 그러면 쫓아 낼거야" "숙제를 왜 안해서 선생님한테 야단이나 맞고... 너 땀에 땀피해 못살겠어"

어린이에게 깊은 상처가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의 책임을 위임받은 부모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심한 상처를 주는 말을 계속하고 있지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상담실을 찾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 이러한 부모의 잘못된 태도와 언어 습관으로 인해 심리적 영적 손상을 입고 일일씩 기력마저 잃어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는 기본도 안 되네" "커서 뭐가 되려고..." "무슨 애가 저래, 왜 저렇게 생겨먹었어?" "바보 같은 게... 이게 무슨 짓이니?" "이래가지고 큰일이다. 쫓쫓" "넌 어찌면 이럴 수가 있어?" "왜 그랬냐? 한심하다." "그러려면 차라리 없애지는 게 낫다." "널 낳지 말았어야 해"

"나 가서 뉘져버려" "얕집 애 좀 본받아라. 넌 이게 뭐냐?" "너 몇 살이냐? 아직도 칠칠치 못하게 물이나 흘리고..." "동생만도 못하구나" "그럴 줄 알았어.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부모의 이런 말들은 어린 자녀에게 비수가 되어 쫓기도 하고,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고 깊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부모의 비난과 질책과 비교하는 말은 당장에 멈추고 아래의 아름답고 건강한 말로 자녀의 심성을 채워주어야 합니다. "나는 항상 너를 믿는다." "난 네가 잘해낼 줄 알았어" "엄마(아빠)는 항상 네 편이야."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정말 훌륭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무척 자랑스럽구나."

"너를 보면 항상 기쁘다." "걱정하지 마. 엄마(아빠)가 있잖니."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렴" 자녀를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정적이고 비난 투의 말을 쓰면 안됩니다.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말, 진솔한 공감의 말, 가슴 따뜻한 사랑과 자비의 말,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소통의 말, 어깨를 토닥여 주는 격려의 말, 힘이 나게 하는 신뢰의 말, 용기 나게 하는 말, 존중하는 말, 아름다운 가치와 의미있는 말, 깊은 배려의 말, 꿈을 키울 수 있는 신뢰와 지원의 말, 평화로운 조화와 협력의 말, 아픈 마음을 기릴 수 있게 만드는 친밀한 말 등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부탁하시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강지윤 박사(심리상담학 박사,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김성광 칼럼 **지난 모든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협력은 헬라어 '순에르게오'란 말로, '함께'라는 '순'과 '일하다'라는 '에르게오'가 합쳐진 단어이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신다'는 말이다. 영어로는 '시너지(synergy)'란 말이다. 함께 일하면 산술적으로 합한 것보다 더 큰 힘과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을 말한다. 사람도 개인이 일하는 것보다는 가정, 기업, 국가가 서로 힘을 합칠 때 더 큰 일을 이룬다. 하물며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이 다 합쳐져서 선하고 유익한 최상의 결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 목표와 꿈을 성취하게 하신다.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1564-1616)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세상 일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정말 웃는 자다. 인생만사(人生萬事) 유종(有終)의 미(美)를 거두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고의 승자이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바로 마지막에 웃는 자이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Abraham Lincoln, 1809-1865) 대통령은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하나님께 매달리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다. 어떠한 삶의 역경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선이 이루어지고 전화위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지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려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와 축복을 베푸신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이다. 미국은 조상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어서 학교마다 성경교육을 시켰다. 그 성경학교가 하버드 대학교라는 세계 최고의 유명한 대학교가 되었고, 후손들은 축복을 받아서 미국은 지금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의 약속을 이루신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종교마다 다르다. 불교에서는 '탐욕이 큰 죄'라고 한다. 그래서 산 속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세상을 보지 않고 탐욕을 없애기 위해 도를 닦는다. 그러나 산 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인간의 탐욕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유교에서는 '불효가 가장 큰 죄'이다. 부모한테 효도하지 못하면 제사를 잘 지내고 묘지에 가서라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한다. 그러나 제사를 지낸다고 살아생전에 부모에게 효도 못한 것이 용서받을 수는 없다. 철학자 소크라테스(Socrates, B.C. 469-399)는 '무지(無知)를 가장 큰 죄'라고 했다. 그런가하면 헬라철학에서는 '교만'이 큰 죄라고 한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가장 큰 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이다. 인간이 도둑질하고 살인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 세계적인 목회상담학자인 데이빗 A. 씨 맨즈 박사는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을 겪는 주요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 물질이나 명예, 탐욕, 세속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보

다 더 사랑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하셔서 시련과 고통이 끝나게 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남자로, 여자로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역사해 주신다. 오스 기나스(Os Guinness) 박사는 <소명(The Call)>이라는 책에서 "부르심이란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데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우리의 인생도 행위도 소유도 다 하나님 앞에 투자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행통케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역경과 시련을 겪고 국민들 입가에 미소를 회복시킬 것을 믿는다. 故김성광 목사

은혜 한 장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어주시되
주의 낮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 베드로전서 3:12

기독교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



TOP 100

YES 24 건강에세이 건강기타 / 네이버 책 베스트 도서 선정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향유음악 제계 속지 마십시오

메시지를 열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며 분초마다 반성합니다. 지난 죄들이 영화 필름처럼 낱알이 떠올라 살날이 얼마 없는 이 늙은이 회개의 시간이 바쁘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이 좋습니다.”

장로님, 이제야 답신합니다. 제계 속지 마십시오. 장로님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저는 주께서 “목에 큰 멧들을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는 자입니다. 자신에게 무사처럼 단호하신 장로님 모습이 제게 큰 같이 되어 늘 저를 잡니다.

장로님께서 “대형 교회면 목회 잘하는 것이냐! 십자가 달고, 십자가 지고 목회해야지! 우리 아들 목사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하신 말씀도 이 새벽 저를 잡니다.

제가 큰 십자가 세웠다고, 십자가 지고 목회하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땅 한 평 가지고 살지 않겠나 하고, 자식에게 유산도 물려주지 않겠나 한 것은 십자가가 전혀 아닙니다. 탐욕의 죄를 못 벗어 발버둥친 것이었죠. 가장으로 아비로서 할 바를 다하지 못할 뿐입니다. 아드님은 좋은 목사, 명설교가입니다.

저는 오는 교인도 내쫓는 목사입니다. 어제도 아내가 제 설교 듣고 “교인들이 여기 잘못 왔나” 하겠다 합니다.

저는 어느 교계 방송국에 몇 년간 매주 내보내던 설교도 끊었습니다. 몇 년 동안 한 300편 설교도 방송국 홈페이지에서 내렸습니다.

제 판엔 “오늘 예배 드리고 내일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해야지” 했는데, 준비도 은혜도 부족했습니다.

어느 큰 재단에서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하나 그만 받겠다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되어, 내가 더 타락할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교회이지 복지 단체가 아니잖습니까! 어떤 분은 작은 교회가 지원받아 노숙인 돕는 게 낫지 않나 합니다. 그렇기도 하지요. 하지만 제 사랑이 부족하니 어쩌겠습니까.

게다가 우리 교회는 노숙인 성도만 있지 않습니다. 한때 소위 성장률 1위 교회였지요. 일반 교인도 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야지요.

또 예배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중에 없어서 죽을 사람 누구냐? 15년 전엔 잘 곳도 먹을 것도 없어서 모두 함께했다. 이젠 먹지 말라는 것 먹어서 망가진다. 예배 시간부터 지키자. 예배가 시작되면 문을 잠급니다.”

저는 늘 노래합니다.
“나는 복지사가 아니다. 예배에 온 이는

노숙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회개하고 거듭나자!”

“세상에 노숙자 아닌 사람 어디 있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는 다 노숙자다. 공동체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땀 흘려 자립 자활하자!”

이렇게 야단질하니, 도와주러 왔던 분들도 사랑 없는 목사라고 떠납니다.

그럴 때 독백을 합니다.
“내 자식이라면 어쩌겠나? 사랑이 많으면 같이 살고, 집 한 칸이라도 줄여서 나누어 주시지요. 주께서는 가진 것 다 팔아서 나누어 주라 하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자선을 쌓는 영혼이 제일 위험합니다. 부족한 제가 겪었습니다. 이제사 사랑 없이 행하는 선행은 올리는 핼과리에 지나지 않음에 회개합니다.

그제 중독치유센터 건립 평창 산골짜기 음악회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공할 생각은 없다. 오직 순종할 뿐이다.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광야에서 끝날 것이다.”

묵상 중 말씀이 임합니다.
“돈에 속으면 집을 잃는다. 바깥 여자에게 속으면 집안에서 쫓겨난다. 목사에 게 속으면 영원한 집에 못 들어간다. 이 목사에게 속지 마라!”

어느덧 동이 뜹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같 하루를 사는 은총을 구합니다.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성경상식

가브리엘

고대의 아나운서
가브리엘은 미가엘과 더불어 성서에 이름이 나오는 유일한 천사다. 구약성서에서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에 두 차례 등장해 다니엘의 꿈을 해석해준다(다니엘 8:16, 9:21). 다니엘은 가브리엘이 빨리 날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날개 달린 천사라는 의미다. 가브리엘은 예수의 탄생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 누가복음에서 가브리엘은 늙은 사제 사가랴가 향을 피우고 있는 성전에 나타난다.
거기서 가브리엘은 사가랴에게 그의 늙은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장차 그 아들이 “주를 위하여 세

운 백성을 준비하리라”고 말한다.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말을 의심했기 때문에 천사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그를 병어리로 만들었다. 늙은 부부의 아이는 자라서 세례자 요한이 된다.
가브리엘이 고지 한, 또 다른 탄생은 아버지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기적의 성격이 더 강하다.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가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을 낳으리라고 예고한다. 마리아는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혹스러워하지만 천사는 이렇게 말한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니, 이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누가복음 1:35).
성서에서 가브리엘에 관한 내용은 그것이 전부다. 그가 왜 심판의 날에 등장하는 나팔수라고 간주 되는지는 확실치 않다. 예수는 그 운명의 날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나타나리라고 말했으며(마태복음 24:31), 사도 바울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데살로니가전서 4:16)라고 말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일곱 천사가 나오지만, 가브리

엘과 심판의 나팔을 연관시키는 구절은 전혀 없다.
미가엘의 경우처럼 그리스도교도와 유대교도는 천사 가브리엘에 얽힌 많은 전설을 만들어냈다. 미가엘이 태양의 운동을 인도하고 가브리엘이 달을 인도한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가브리엘이 시나이산(시나이산)의 돌에 십계명을 썼다는 설도 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를 잉태하리라고 고지했다는 것을 토대로, 베들레헨 인근의 양치기들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린 이도 가브리엘이라는 전설이 생겨났다. 또한 모세의 시신을 아무런 표시가 없는 무덤에 묻은 이가 가브리엘이라는 전설도

있다.
미가엘과 가브리엘은 둘 다 ‘천사장’으로 간주되지만, 성서에서는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라는 구절이 없다. 여느 천사들과 달리 이름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특별히 중요한 천사라고 여겼을 테고, 일반 천사가 아니라 천사장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가브리엘은 존 밀턴(John Milton)의 『실락원 Paradise Lost』에서 미가엘을 도와 사탄과 반란 천사들을 물리치는 중요한 역할로 등장한다. 또한 가브리엘은 이탈리아 시인 토르카토 타소(Torquato Tasso)가 제1차 십자군을 소재로 쓴 서사시 『해방된 예루살렘

Jerusalem liberata』에도 등장한다. 가브리엘은 수많은 회화 작품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기 예수를 잉태하리라고 고지하는 역할로 나온다.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부른다. 그래서인지 전통적으로 가브리엘은 집배원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져 있다.
가브리엘은 미가엘처럼 코란에도 등장한다. 여기서 그의 이름은 자브라일(Jabrail), 또는 지브릴(Jibriil)이다. 그는 또한 무함마드에게 신의 계시를 전달하는 신실한 신령으로도 불린다. 가브리엘은 사실 그리스도교보다 이슬람교에서 더 중요한 존재로 대접받는다.
들뜬 출판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삶의 목적대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43:21)



김성중 목사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다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계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고, 핸드폰의 목적은 전화를 걸고 받는 것이고,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증폭시켜서 많은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존재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의 하나인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이 백성”은 문맥상 일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며, 가장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찬송시를 많이 작곡했던 패니 크로스비 여사는 정말 인생을 잘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눈병에 걸렸습니다. 눈병을 고치다가 의사의 실수로 말미암아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녀는 아주 불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게 어렵게 사는 삶이라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제대로 된 삶을 산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패니 크로스비 여사는 육신의 눈이 안 보이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을 보지 않게 되었고,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은 계속 순수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패니 크로스비 여사는 그의 인생 가운데 찬송시를 9,000여 편이나 썼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640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288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435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384장)” 등등 주옥같은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가른 뒤에 출애굽기 15장에서 노래로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사사기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로서 찬양했고, 다윗도 많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은 시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곡조를 붙여서 노래가 있는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이 밖에도 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나팔, 비파와 수금, 소고, 현악, 통소, 큰 소리 나는 제금, 높은 소리 나는 제금 등 다양한 악기로 찬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마음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을 때 위선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찬양하는 척하는 율법주의적인 모습, 형식주의적인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주신 창조자의 은혜를 깊이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 김성중 목사

장로회신학대학교 교육학/글로벌컬처교육원 교수이자, 예장통합 서서문교회 청년부 담당목사로 섬기고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찬양은 영어로 'praise'입니다. 이 말의 뜻은 '높이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의미는 상황과 관계없이, 조건과 관계없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조건이 좋을 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상황과 조건과 관계없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찬양이지만 또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찬양은 기도와와 구분되어 거의 없습니다. 찬양사가 바로 기도이며, 찬양사에 곡조를 붙인 것이 노래로서 부르는 찬양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13편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에게는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의 마리아에게는 찬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이 명확히 구분되어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생활이 곧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생활이 곧 찬양하는 생활입니다.

진정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삶의 목적대로 제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의 삶

예배자의 삶은 주님이 나로 하여금 듣기 원하시는 것만 듣는 것이요, 보기 원하시는 것만 보는 것이요, 말하기 원하시는 것만 말하는 것이다.



조성환 목사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 12:26)

일전에 알던 어느 집사님과 대화 중에 있었던 내용이다.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집사님 왈 “제가 이례 보도 사업할 때는 화끈하게 합니다!”

이런 말을 듣고 나는 그 집사님께 물었다.

“혹시 집사님이 크리스천인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안니까?” 나의 질문에 그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

“모르죠.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음악목사로 또 대학의 교회음악과 교수로서 나의 꿈은 나와 함께 동역하는 찬양대원들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일치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때론 세상 속에서 주어진 형편과 상황에 따라 우리는 타협하며 살아가게 될 때도 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투명한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그런 삶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지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다. 바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려는 소원을 가진 자가 바로 예배자이다.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서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인 것이다. 바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음악가들이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이루는 것은 거의 기적이다. 아마도 그래서 영성 중에 가장 위대한 영성이 연합의 영성이라는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이 아마도 음악가들 사이에 더욱 크게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나를 봐도 그러하다. 어디 가서 내가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내안에 “그래도 내가 좀 하는데”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진정한 연합은 척 하는데서 오지 않는다. 진정한 연합은 주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이 내 인생에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자 이제,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도록 하자. 주일날에만 열심을 내어서 섬기는데 끝나지 않고 이번 주 중에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자. 우리의 연합함으로 인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자.

아모스 선지자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성회들이 풍성했지만 아

나님의 마음은 떠나있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여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비파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라도 네 비파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라도 오직 정의를 물 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이다” (암 5:21-24)

주님, 주님 앞에 예배자의 삶으로 서 있는 우리 찬양대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장소와 형편에 상관없이 예배를 꿈꾸는 자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로 듣기 원하시는 진리만 듣게 하시고 우리로 보기 원하시는 것만 보게 하시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 되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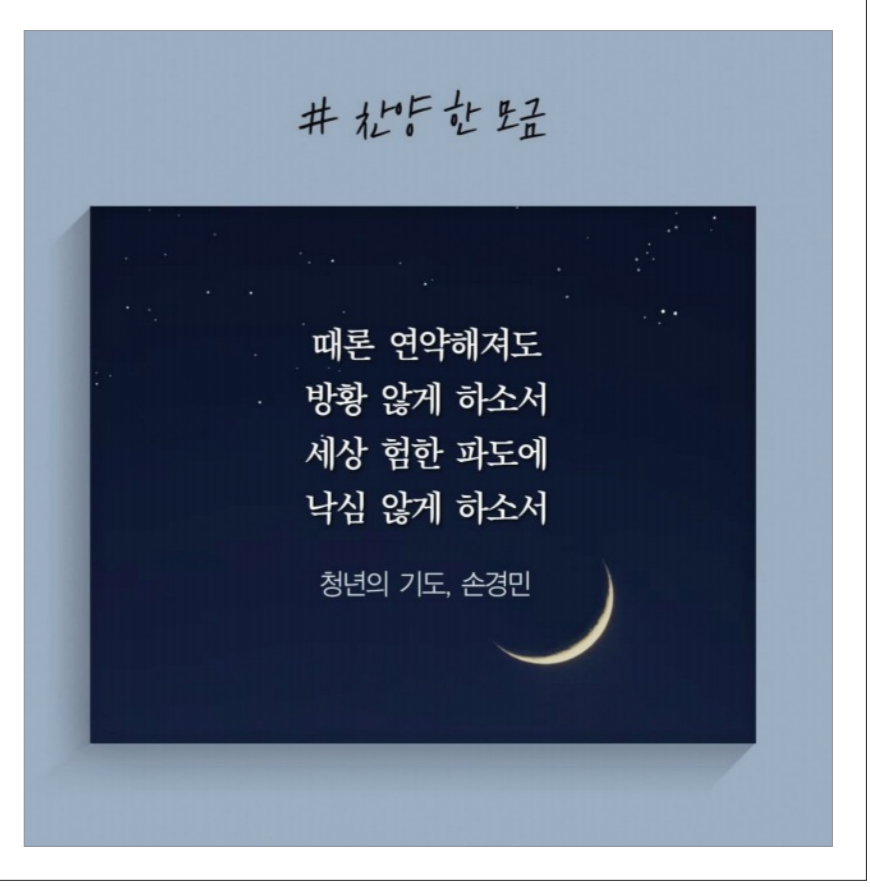
오늘 이 예배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연장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조성환 목사

초등학교 때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윤학원 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연주를 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북한 현실 다룬 영화들의 연이은 극장가 러쉬

<비온드 유토피아>, <탈주>, <본노의 강>



(왼쪽부터) <비온드 유토피아>, <탈주>, <본노의 강> 포스터

5월 개봉 예정 생존 휴먼 드라마 <본노의 강>을 포함해, 북한의 현실을 보여주는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미국 국무부가 '2023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여전히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가운데, 이 같은 영화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것

먼저 지난 4월 11일 재개봉한 <비온드 유토피아>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

권의 실태와 자유를 택한 이들의 탈출을 돕는 김성은 목사의 헌신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낙원이라 믿고 자란 땅을 벗어나려는 이들의 위험한 여정은 안타까움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며 제77회 영국 아

카데미 시상식 다큐멘터리상 최종 후보에 선정되는 자력을 보였다.

<탈주>는 내일을 위한 탈주를 시작한 북한병사 '규남'(이재훈)과 오늘을 지키기 위해 '규남'을 쫓는 보위부 장교 '현상'(구교환)의 목숨 건 추격전을 그린 영화. '꿈을 꾸고 있는 한, 모든 사람은 살아있다'라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강렬한 액션과 인물들의 진한 드라마를 통해 풀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본노의 강>은 자유가 있는 삶을 꿈꾸던 한 가족이 겪게 되는 아픔과 고난의 생존 휴먼 드라마다. 굶주린 가족을

위해 목숨 건 가장 '기철'과 꽃재비 소년 '철수의 아이'로,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현실을 가감 없이 전할 예정이다.

<본노의 강> 연출을 맡은 윤철형 감독은 실제 실형인 가족을 두고 있어 북한의 평범한 주민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영화 <명량> <한산: 용의 출현>,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 출연한 베테랑 배우 김강일이 아버지 '기철'로, 애플TV+ 오리지널 드라마 <파친코>로 얼굴을 알린 신에 윤경호가 '철수'를 맡아 열연을 펼쳤다.

김진영 기자

보령시, 고대도 '칼 귀츨라프' 마을 개관식... 해양문화체험관 본격 운영

보령시는 최근 고대도에서 칼 귀츨라프 마을(오전면 고대도2길 41)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고대도 해양문화체험관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에 개관한 해양문화체험관은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16억 원, 지방비 16억 원을 들여 조성됐다.

시설은 연면적 725㎡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졌으며, 1층에는 선교의 섬 고대도의 어제와 오늘, 해양 관광 체험, 특산물을 엿볼 수 있는 기획전시실과 다양한 해양문화 공연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이 있다.

아울러 2층에는 1832년 고대도에 머물며 선교 활동을 했던 칼 귀츨라프의 선교 테마 기획전시실과 뮤지컬 형식으로 제작된 영상을 관람할 수 있는 영상 전시실을 조성했다.

또한 맞은편에는 어촌뉴딜 300 사업으로 조성한 칼 귀츨라프 존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커뮤니티 공간)과 게스트 하우스(지상 2층)가 있어 관광객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해양 문화를 공유하고, 화합할 수 있는 오픈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일 시장은 "고대도 칼 귀츨라프 마을은 현재 조성 중인 선교사의 길(2.9km)과 함께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꼭 한번은 방문할 수 있는 성지순례의 명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내래 기자



고대도 '칼 귀츨라프 마을' 개관식 참석자들의 모습. ©보령시

19세기 부흥 운동가 드와이트 무디의 삶, 뮤지컬로 펼쳐진다

영혼 구원의 메시지 전하는 '시카고의 아이들'

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한 무디의 감동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



19세기 미국에서 활약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의 부흥 운동 이야기가 뮤지컬 무대에 올려진다. 뮤지컬 '시카고의 아이들'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

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파한 무디의 감동적인 삶을 그리고 있다.

젊은 시절 구두 판매원이었던 무디는 교회의 사역으로 자신의 길을 바꿨다. 그는 시카고 빈민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

하기 시작했고, 5년 만에 1천여 명의 아이들이 모이는 시카고 어린이 선교회를 이끌었다.

하지만 진정한 회심의 계기는 한 교사의 마지막 순간을 목격하면서부터였다. 무디는 그 교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달았고, 이후 열정적인 전도 활동을 펼치게 된다.

연출가 최정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귀족들의 심령에 역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작품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며 정체성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할 것이다.

뮤지컬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마포 아트센터에서 공연된다.

이내래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송 50 신앙예세	40 힐링스토리 50 생명의 사랑 - 데일리리뷰-	00 생명의 삶 20 바리새 프로젝트 (신약)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TV강단 강남성결(정인교) 30TV강단 서울은혜(김태규)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지훈 목사(대구부영교회) 30 생명의 말씀-김형준 목사(동양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자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유관재 목사(성광교회) 5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00 생명의 양식(사상성결(김형배)) 30 주만찬 50 오늘 만나는 큐티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7:00	00 CTS 뉴스 20 생명의 말씀-권오규 목사(계산제일교회) 50 생명의 말씀-김원태 목사(수지구림의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샘터 수원순복음교회 이요한 목사 50 비전학교 대한교회 윤영민 목사	30 영적성장의 도구 에너그램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찬양예배 말씀 (류영모)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50 노변타워
오전 8:00	20 신앙예세 30 자판기	2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50 성서의 땅 이스라엘을 가다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한기재 목사(중앙성결교회)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	00 복음강단 -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진주초대교회 이경은 목사
9:00	0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50 아주 특별한 찬양	20 마커스워십 50 힐링송	00 가족의 축복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10 새롭게하소서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곁으로
10:00	40 바리새 프로젝트 5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00 말씀의 샘터 아멜포이교회 임동현 목사 30 말씀의 샘터 솔로몬교회 홍성익 목사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00 잘 믿고 잘 사는 법 20 목사님 궁금해요 40 CBS뉴스	00 일리토크 회복 5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11:00	40 Miracle Moment 50 [생방송] CTS 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샘터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	0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50 영적성장의 도구 에너그램	00 폴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말씀의 창 - 포항동부교회 김영걸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샘터 전주바울교회 신현모 목사	10 바리새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TV강단 오병이어(권영구) 30 오직예수 (이영훈)	20 복음강단 - 신촌성결교회 박노훈 목사 50 우리함께 찬양해
13:00	00 생명의 말씀-김성곤 목사(풍성한교회) 30 신앙예세 40 인생을 바꾸는 7분 - 예수가 길이다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샘터 예성교회 김기남 목사 30 세상을 보는 창 오색오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리새 20 [말씀] 양준길 목사(필그림선교회)	2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30 만나 워십
14:00	00 [생방송] 콜링갯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감동처럼 30 문방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최원준 목사(안양제일교회)	00 말씀의 힘 우연동(정준경) 30 새롭게하소서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오후 15:00	4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기	00 [말씀] 최경욱 목사(포감사선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 송암(김정곤) 30 TV강단 성남빛나는(서학복)	00 수영교회로 새물결 새바람 NEW WAVE
16:00	30 생명의 말씀-박노훈 목사(신촌성결교회)	00 말씀의 샘터 소성교회 강복열 목사 30 말씀의 샘터 대구동선교회 문대원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리새(영문) 20 크리스천의 슬기로운 직장생활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김형익 목사(벤살롬교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50 CBS비전특강 이름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00 이서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생명의 말씀-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50 빛으로 소망으로	00 말씀의 샘터 한신교회 강용규 목사 30 김대성 목사와 함께하는 기도순례대행전 부흥회	3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40 CBS 교회소식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말씀의 창 - 한빛교회 김진오 목사 30 말씀의 창 - 순복음서울진주초대교회 전태식 목사
18:00	00 생명의 말씀-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 30 Miracle Moment 40 TV찬양예배	00 비전학교 대전태평교회 한상현 목사 25 말씀의 샘터 한중사랑교회 서경희 목사 50 더 메시지	10 한국교회 상담사역 콘퍼런스 50 바울로부터	10 더 콜링 30 산위의마음을 예배 (김영준)	2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30 말씀의 창 - 엘드림교회 임병재 목사
19:00	00 2023 다니엘 기도회	00 이영훈 목사의 성령님과 함께	30 바울로부터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30 TV강단 두란노(이상문)	00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륙 30 스페셜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20: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영상 3분 미라클 30 생명의 말씀-장찬영 목사(강남중앙교회)	00 명사들의 명강 30 여주봉 목사의 회복과 부흥으로 가는 길	0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성서 700 도시여행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10 비전메시지 - 기쁨의교회 박진석 목사 40 복음강단 - 새문해교회 황형택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0 세상을 깨우는 말씀 훈민복음 30 백석대학교 장중현 총장 칼럼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뉴스	00 갈보리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홍규) 50 CBS 뉴스	10 나의 십자가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백세특강	10 아버지 나의 아버지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목상 (사도행전 2024) 20 바울로부터	1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0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저녁 23:00	00 더 메시지 30 신앙예세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R.T. 캔달의 말씀과 성령 30 생명의 삶 50 바리새 프로젝트 (신약)	1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 20 오늘 만나는 큐티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리버티 워십 50 김윤희 목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24:00	00 콜링갯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예배상황 광림교회 김정서 목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CBS 아카데미 쇼 50 살롱 토크	00 마음으로 말해요 공감창고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최일도 목사의 인생사진관	00 일대일 양육모임 30 스캇브래너 목사의 십자가의 영광	00 [말씀] 김운성 목사(영락교회) 40 [말씀] 도지원 목사(예수버전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40 말씀의 능력(전태식)	00 말씀의 창 - 하나교회 이혁권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명성과 충신교회 박중순 목사 30 명사들의 명강	20 [말씀] 이주원 목사(산마루교회)	30 TV강단 용인신성(이대희)	00 말씀의 창 -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라톤 - 예수사랑여기에 50 바리새 프로젝트	0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R.T. Kendall's Word & Spirit 3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폴포원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박중순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영안장로교회 양병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영광교회)	00 CBS 성서학당 (조성욱) 50 CBS 교회소식	00 우리함께 찬양해 4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50 힐링토크 회복

동행·매력 특별시서울

SEOUL M♡SOUL

봄빛 찬란하다

ENJOY ALL THAT SEOUL

SEOUL FESTA 2024

서울페스타 2024



2024. 5. 1.(수)
~ 5. 6.(월)

📍 서울광장에서
K-POP 콘서트 직관

📍 광화문광장에서
서울 로드쇼 체험

📍 상암 노을공원에서
고기굽굽 피크닉

📍 힙한 명동
페스티벌까지!

※ 장소별 프로그램 기간 및 세부정보는 QR코드 확인



seoulfesta.com